

한국디자인DNA 심화연구

훈민정음

심화연구자 김 영 기(문화산업R&D 연구소)

CONTENTS

제1부 서:새로운 인식

- 1장 근현대디자인 사건, 훈민정음
- 2장 앞으로 훈민정음 DNA 연구는 유전되어야 한다.

제2부 정체성 DNA

- 1장 한국디자인 DNA-[전혀 다름] 발굴
- 2장 한국디자인 DNA-[유일정신] 발굴
- 3장 한국디자인 DNA-[디자인 명분] 발굴
- 4장 한국디자인 DNA-[행위체계의 명분] 발굴

제3부 열린 소통

- 1장 한국디자인 DNA-[열린 소통의 창조성] 발굴
- 2장 한국디자인 DNA-[경우의 창조성] 발굴
- 3장 한국디자인 DNA-[이치의 디자인 도] 발굴
- 4장 한국디자인 DNA-[사덕의 길] 발굴
- 5장 한국디자인 DNA-[전혀 새로운 길]의 창조성

제4부 휴머니티 DNA

- 1장 한국디자인 DNA-[쉽고 편리한] 구조의 창조성
- 2장 한국디자인 DNA-[쉽게 쓰고 소리내고 배움] UI 구조의 디자인

제5부 한글 자형 디자인의 창조성

제6부 결론

한국디자인DNA 발굴을 위한 훈민정음(訓民正音) DNA연구

이달에 임금이 친히 언문(諺文) 28자(字)를 지었는데, 그 글자가 옛 전자(篆字)를 모방하고, 초성(初聲)·중성(中聲)·종성(終聲)으로 나누어 합한 연후에야 글자를 이루었다. 무릇 문자(文字)에 관한 것과 이어(俚語)에 관한 것을 모두 쓸 수 있고, 글자는 비록 간단하고 요약하지마는 전환(轉換)하는 것이 무궁하니, 이것을 훈민정음(訓民正音)이라고 일렀다.

이조실록, 세종 편, 세종25년 12월 30일 국역

들어가는 말

훈민정음은 한국 디자인의 DNA 발굴에서 가장 뛰어난 디자인 창의성 및 정체성의 길을 찾을 수 있는 역사적 디자인의 창의적 사건이며, 디자인 정신의 실천적 모델로 세계사에 없는 15세기 디자인의 일대 사건이다. 이러한 역사적 사건을 통해 한국사회의 산업과 경제에 걸친 교육과 나아가 앞으로 한국디자인, 디자인 교육, 그리고 디자이너들에게 새로운 시각에서 자신의 존재를 문화인류학적으로 새롭게 인식하고, 한글 창제의 디자인 정신에서 민족 정체성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훈민정음에 나타나는 DNA 연구는 디자인 분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인의 집단 창의성(Collective Creativity)의 잠재력을 발휘하여 놀라운 나라(Amazing Nation) 우리가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려는 21세기 벽두에서 문화인류학적 DNA인 창의성의 본질, 즉 아비투스(Habitus : 인지판단행위체계의 기질과 성향)를 밝히는 연구가 아닐 수 없다.

나아가 한국인의 디자인 DNA를 발굴하려는 목적은 우리가 현대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폐허가 된 국토와 공허하고, 무너진 마음의 세계를 딛고, 오늘과 같은 나라를 일으키기까지 걸어 온 현대사에서 디자인 DNA연구는 국가를 새롭게 디자인해 낸 우리 자신의 인류학적 존재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여 세계 가운데 당당히 주장하고, 존재감을 확립하려는데 있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천안 함 사태 후 중국동포와 함께한 자리에서 "우리는 매우 강한 나라"라며 "어려움을 겪어서 많은 국민들이 슬픔에 잠겨있지만 이제 슬픔을 걷고 다시 용기를 가지고 국내외에서 당당하게 걸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이든 국가든 위기가 오면 그것을 딛고 이기는 민족만이 발전할 수 있다"며 "우리는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또 우리나라를 "유일하게 분단된 나라로 세계에서 몇째 안가는 국방비를 쓰고 있는 나라"라며 "그러면서도 가장 빠르게 복지를 개선하고 있는 이중의 부담을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렇다 우리는 강한 나라이다. 이 강한 힘이 어디에 있을까? 그리고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 이 원형을 구명(究明)하여 사회의식의 흐름이 되고, 교육을 통해 극대화되기 위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이달 말 한·중·일 정상회담과 오는 11월 G20정상회담 때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방문하는 점 등을 들면서 "중국과 이미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데 앞으로 그 관계가 더 확대될 것"이라며 "이 땅(중국)의 한국인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우의를 더 강화시킬 수 있다"고 국민들에게 당부했다.

이 땅의 한국인들은 우리말을 하는 재중 조선인을 의미한다. ‘우리말’을 하고, 지키고,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말’이 문화인류학적 정체성의 실체이기 때문이다. 말을 지킨다는 것은 곧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다. 오늘까지 지정학적으로 겪어온 수많은 고난과 고통의 사건들이 앞으로도 수없이 닥쳐 올 세계사의 환경 속에서, 무엇으로 오늘 우리가 세계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는 나라와 민족이 되었는지, 그 잠재력의 DNA가 무엇인지를 밝혀 보려는 분명한 명분(名分)이 있다. 또 그것은 마치 깊고, 깊은 지하에 묻혀 숨겨진 보물을 발견하고, 발굴해 내어, 빛을 발하게 하고, 우리 자신을 재발견한 가치와 능력을 모든 분야를 걸쳐 세계화시켜, 한국인의 인간가치를 세계 모든 나라들에 재인식시켜, 경제와 문화의 지평을 넓히고 인류학적 지형도를 넓혀갈 계기를 마련하는 연구가 될 것이다. 우리의 옛 시조에 이런 시가 있다.

옥이 흙에 묻어 길가에 바렸으니
오는 이 가는 다 흙만 여겼도다
두어라 흙이라 한들 흙인 줄이 있으랴

—윤두서(尹斗緒)—

가장 불행한 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이 아니라 나 자신이 나의 가치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며, 더욱 불행한 것은 그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일 것이다. 우리 민족의 잠재능력은 이미 사회발전과 경제 발전의 과정에서 증거 되고 있다.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훈민정음은 이를 분명하게 집약시킨 연구대상이라 생각한다.

세계사의 새로운 장을 열어 갈 21세기, 새로운 한민족의 역사는 이전에도 없었고, 21세기는 한국이 세계를 향해 문화의 지평도(Horizon of Cultural Map)를 넓혀갈 계기를 마련하여야 한다. 그래서 우리(我)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의 국가들, 특히 선진국들(非我)과 엄격한 규칙이 적용되는 게임을 통해 지속적 발전을 이루어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적 과제가 우리 앞에 있다. 영토는 약 120번째로 작은 나라, 인구는 오천만 명이 채 되지 않는 소수민족의 나라, 내수시장의 한계를 딛고 오늘을 이루었다. 20세기 과학기술 문명의 힘에 의해 무참히 밟히고, 분단된 아픔의 잃어버린 60년은 전쟁으로 초토화된 나라 최극빈의 나라였다, 그런 한국이 50년 만에 경제 활동력이 영국을 제치고 세계 10대 안에 들어가는 나라, 세계의 여러 위기들을 가장 잘 해결하며 사회발전과 경제발전의 균형을 이루어 온 나라, OECD 국가 중 가장 성공적으로 IMF 금융위기를 창조적으로 극복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지난해 대한민국이 금융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경제를 회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올해도 모든 국제기구가 금년에 가장 높은 성장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아울러 "여러 불확실성이 있지만 한국이 위기를 극복한 요인 중 기업가들의 공로가 크다"고 말했다. 기업의 공로라면 기업의 총체적 능력을 이끌어가고 있는 기업인들과 우리들이다. 그런 우리는 과연 누구인가? 그 기업인의 잠재력은 어디로부터 오는 능력일까?

그런데 이런 한국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유럽 현지에서 프랑스인들이 답변한 내용들을 보면 알 수 있다. 소수의 사람들의 답변이지만 너무나도 한국을 모르는 답변에 짜증을 느꼈다고 현지의 기자는 말하고 있다.. 주 프랑스 한국문화원은 요즘, 프랑스 설문지조사기관(IPSOS)에 의뢰해서 프랑스인이 한국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조사했다. 조사한 결과를 보면 답변자의 41%가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모른다.>라고 답하고 있다. 한국에 호의적(27%)인 사람보다도 호의적이지 않다(32%)인 사람이 많았다.

그러나 한국을 알고 있어도 제대로 알고 있지 않다. 한국의 대표적인 문화를 질문하면 받은 <모른다>고 답변하고, 나머지는 거의 <서커스>라고 답변했다. 가끔 유럽에서 소개된 중국서커스단을 한국 것이라고 헛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 외의 <외부와 단절된 폐쇄적인 나라>또는 <정치범이 많이 수용된 나라>라고 답변하는 사람도 있다. 10명중 7명(68%)는 <한국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은 없다>고 답변하고 충격을 주고 있다. 말하자면 대부분의 프랑스인은 한국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얘기다. 삼성전자가 일본의 기업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란단. 이밖에 다른 나라에서도 거의 비슷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들에 실망할 이유가 없다. 중국은 이미 유럽인들에

게 수세기 전 잘 알려진 국가이며, 일본은 이미 17세기 이후 알려진 국가이다. 이러한 국가들 사이에서 한국이 알려진 것은 6.25 전쟁으로 인하여 알려지기 시작한 것이다. 한국은 이제 알려진지 반세기 정도의 국가 이미지에 지나지 않는다. 한국은 동북아시아의 지역에서 강력한 역사의 중국과 근세에 알려진 특별한 문화의 나라로 알려진 일본의 빛(halo effect) 사이에서 어둠에 가려 좀처럼 들어날 수 없었다. 그런 가운데 1957년 토인비는 그의 유명한 저서 역사연구에서 한국을 ‘일본의 그 지파’로 기술하고 있어 나라의 문화와 역사의 정체성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이런 결과는 프랑스만이 아닐 것이다. 작년, 스페인의 사라고사만국박람회회장에서 실시한 설문지조사로는 4명중 3명이 <한국을 모른다>고 답변했다. 답변자 중에 스페인사람이 많았겠지만 많은 외국인이 박람회장을 방문한 점을 고려하면 세계 사람들의 평가라고 받아들여도 좋겠다. 이렇게 보면 적어도 유럽에서는 세계10위로 뛰어 오른 경제대국, IT대국이라는 말은 결국 한국의 자화자찬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사실이다. 다만 세계인의 기억 속에 자리 잡기까지 시간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그러한 사실들이 보편적 인식에 이르려면 역사적 시간이 필요하다. 실제로 해외의 한국기업가들의 일부는 <자사제품을 한국산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다>라고 한다. 자사의 제품을 설명할 때 <폐쇄된 나라><인터넷도 없는 나라><호감을 가질 수 없는 나라>의 제품이라고 일부러 소개하고 싶을까? 역대 한국정권도 한국을 세계에 소개하려고 노력해왔다. 그러나 결과는 비참한 상황이다.

이제 우리의 비즈니스 언어가 바뀌어야 한다. 비즈니스는 한국을 알리는 통로가 될 것이다. 이일은 이제 경제적인 측면보다는 한국인의 인간가치를 말하는 정신문화의 깊은 이야기가 있는 나라로 인식되도록 비즈니스 언어(Business Talk)의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 한국에 대한 새로운 인식은 훈민정음을 통한 새로운 이해와 설명, 그리고 그 창의적 사건, 정치사회적 의미를 통해 새로운 사실을 우리 스스로 밝혀 우리의 DNA가 어떻게 중국과 일본이 다른지를 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새로운 각도에서 훈민정음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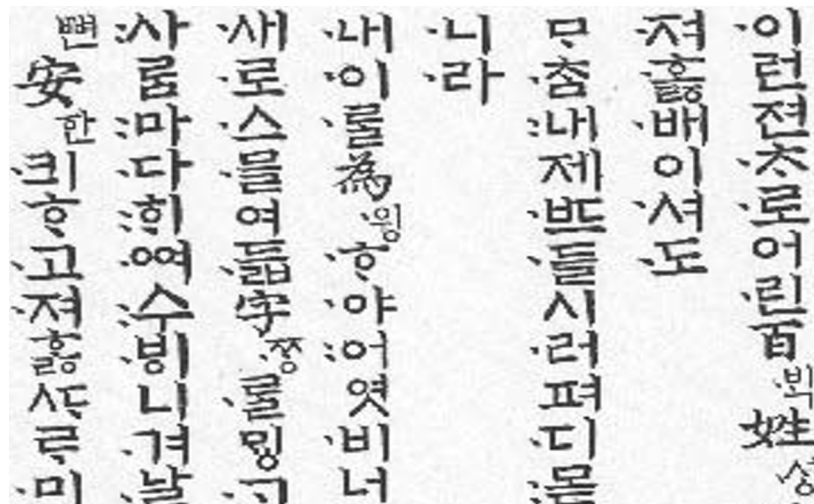
■
제 1부

서(序) : 새로운 인식

1장. 근-현대 디자인 사건-훈민정음(訓民正音)

아래의 사진은 훈민정음 반포 당시의 반포 원문이다. 이 원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토대로 그 가운데 깊이 숨겨져 있는 정신과 오늘 우리가 발굴하고자 하는 한국 디자인 DNA가 과연 무엇인지를 밝혀낼 수 있다면 문화, 산업, 교육 등 전 분야에 걸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리고 디자인 창의성의 기질과 성향을 살려내고 충만하고(Fullness), 풍요로운 마음(Richness of Heart)을 지니게 될 것이다. 그리고 디자인을 통한 정체성 확립의 방향과 정책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에 걸쳐 지실로 무엇이 가장 중요한 능력이며, 이 능력이 독특한 창의성에 있다는 매우 중요한 단서들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훈민정음은 한국디자인 역사에서 이정표가 되어야 하는 [위대한 디자인], [가장 영웅적 디자인], 사실상 [현대디자인의 기원]으로 새롭게 조명되어야 하는 디자인 사건으로 재인식되어야 한다.

한국디자인DNA발굴 연구는 바로 이태리를 비롯한 유럽에서 15세기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영원한 예술가와 과학자의 표상으로 여기는 것과 같이 우리의 경우는 한글창제의 사건을 통해 나타난 정신과 과학적 사고를 통해 성취시킨 당시의 세종과 집현전 학사들의 창조적 인간상을 한국인의 삶의 자세로 학습되어지고 오늘의 디자이너와 과학자의 표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랏말싸미 듕귁(中國)에 달아 문중(文字)와로 서르 스몓디 아니홀썬, 이런 전초로 어린 백성(百姓)이 니르고져 흙배 이셔도, 므츨내 제 뜰들 시러 퍼디
흙 노미 하니라. 내 이를 윈(爲)하야 어엿비 너겨 새로 스믈 여
중(字)를 밍궤노니 사름마다 히여 수비 니겨 날로 뿌메 한(便安) 하고져

흥 색르미니라.

[國之語音이 異乎中國호야 與文字로 不相流通홀썬,故로 愚民이 有所欲言호야도 而終不得伸其情者ㅣ 多矣라. 予 爲此憫然호야 新製二十八字호노니, 欲使人人으로 易習호야 便於日用耳니라.]

—원문(한자)과 국문(언해)으로....

훈민정음 창제 이유와 정신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교과서에서는 훈민정음에 나타난 정신을 첫째 / 자주정신이며, 다른 독자적 문화를 지켜온 민족의 주체성의 각성으로, 둘째 / 애민정신이며,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유로운 의사표현의 길을 열어주는 실천정신으로, 셋째 / 실용정신이며,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의 편의성이라고 가르치고 있으며 그렇게 배워 왔다. 그리고 훈민정음은 과학성과 독창성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인식되도록 배워 왔다. 그런데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이 지나친 것이 그 안에 우리 개개인들에 잠재된 DNA가 무엇인지를 밝혀 보려는 노력은 하지 않았다. DNA연구는 바로 이러한 우리의 창의적 정신이 무엇이며, 그 실천적 요소가 무엇인지를 밝히려는 것이다.

2장. 앞으로 훈민정음 DNA는 유전되어야 한다.

훈민정음은 과거적 사건이 아니라, 한국이 발전하게 된 오늘의 현실에서도 다양한 방향에서 일어나고 있는 [훈민정음적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오늘의 시각에서 뿐만 아니라, 2030년을 향해 우리가 도전 받고 있는 문화와 문명의 새 역사를 창조하기 위해서 새로운 세대들 안에 품고 있는 훈민정음 DNA를 발굴시켜 주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앞으로 우리가 직면한 현실은 서구의 선진 제 국가들과 동북아시아의 일본, 그리고 긴 잠에서 깨어난 사자처럼 무섭게 성장하고 있고 세계의 열강들이 두렵게 생각하고 있는 중국의 사이에서 한국이 성공적으로 정체성을 바탕으로 나아 갈 DNA를 밝혀내야 한다.



제 2부

정체성 DNA

나랏말싸미 등궤(中國)에 달아 문중(文字)와로 서르 스몏디 아니홀췌,

[나라의 말싸미 중국과 다르다]

당시 1443년(훈민정음 반포년도), 즉 14세기로부터 16세기에 이르는 세계사를 볼 때 서구에서는 르네상스(다시 태어난다는 의미) 문예부흥운동이 일어났으며, 이 운동으로 문학, 미술, 건축 등 예능분야에서 먼저 시작되었다. 그 이후로는 서양의 모든 사상과 생활방식에도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즉 인간성의 해방과 인간의 재발견, 그리고 합리적인 사유(思惟)와 생활태도의 길을 열어 준 근대문화의 선구적 운동이 일어나고 있었던 시기이다. 이런 세계사적인 자각기(自覺期)에 15세기 우리나라에서는 중국과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말이 다르므로 마땅히 문자가 달라야 한다는 것을 자각하고 백성들이 쓰고 있는 말들이 한문으로 표기 할 수 없고, 불편하여 자신들의 뜻을 마음대로 기록하고 전할 수 없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고(For the people) 말과 문자가 일치하지 않는 데서 오는 여러 가지 모순과 불합리를 제거하자는 데 그 창제동기와 목적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어의 구조와 음운체계에 맞고 배우기 쉬운 글자를 만들어, 우리의 음운과 의사를 그대로 표기할 수 있을 때 한국은 보다 적극적으로 민족문화를 육성,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우리가 훈민정음 반포 문에 나와 있는 [다르다]의 ‘다름’은 영어로 ‘Difference’가 아니고 [전혀 다름 : Dissimilar]이다. 당시의 동북아에서 조선의 왕이 ‘중국과 [다르다]’라고 말하고 주장하는 것은 당시의 정치적 상황으로는 매우 민감하며, 위협한 일이며, 대외 정치적 환경에 비추어 중국과의 관계에서 건국초기이기도 하지만, 문자의 창제는 아마 독립을 선언하는 것과 같은 매우 위협한 정치적 선언이었을 것이다. 정체성을 지닌 개인이나, 사회, 국가의 주권이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데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오늘의 세계시장에서 [다른 디자인]으로 [다른 가치]를 인정받지 않는다면 경쟁을 할 수 없다.) 오늘의 개방적 국가체제에서는 더욱 더 [다르다]는 것을 인정받을 수 없는 나라가 주권적 선언을 하는 경우는 국제관계에 있어서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보면 문자의 창제는 [문화의 독립선언]으로 당시의 위협한 발상이었을 것이 분명하다. 오랫동안 조선 군주의 리더쉽을 연구해 온 이한우의 저서 ‘세종’에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술되고 있다.

국역 ‘조선왕조실록’에서 훈민정음 창제와 관련된 것은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만 나온다. 세종 25년 12월 30일 훈민정음이 창제 되었다는 것, 세종 28년 9월 29일 훈민정음 반포, 그리고 세종 28년과 29년 하급관리 선발 시험에

훈민정음을 포함시키라고 지시하는 세종의 명령 2건과, 세종 29년 완성된 [동국정운(東國正韻)]에서 훈민정음이 잠깐 언급된 것 등이 전부다 “

여기서 우리가 놀란 것은 저자뿐만 아니라 공통적으로 훈민정음 창제에 대하여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세종 25년 12월 30일 훈민정음이 창제된 이전의 내용은 하나도 기술되어 있지 않아 답답함을 금할 길이 없다고 누구나 고백한다. 그래서 훈민정음 창제 작업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며, 이 일을 주도한 사람은 누구인지 정보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들이 당시 훈민정음의 창제가 얼마나 민감한 사항이었는지를 짐작케 해 준다. 당시 세계적으로나, 동북아시아의 역사적 상황은 암흑기라 할 수 있다. 15세기는 암흑기를 벗어나려는 여명기로서 유럽은 문예 부흥기가 시작되고 있었고, 근대 이전까지 중국과 한국, 한국과 중국의 관계는 역사 이래 중요성을 지니는데, 중국과 한국의 관계 보다는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그 비중이 컸으며 근대 이전에는 거의 유일한 관계였다. 이 관계사는 정치적으로 직접지배를 의도한 것이 아니라 조공을 바치는 복속(服屬)의 처지였으므로 명나라가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도록 우리 자신의 말에 가장 잘 디자인된 문자를 창제 한다는 명분과 한자음을 올바르게 표기할 표음문자를 만든 것이다. 그러나 결국 15세기 우리나라는 나라의 고유한 문자를 언제, 어디서, 누가, 왜 창안하였는가를 분명히 밝힐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가 유일한 국가이며, 문화민족이라는 것이다.

1장. 한국디자인 DNA-[전혀 다름] 발굴

훈민정음에서

1 : 한국디자인 DNA-[다름 (Dissimilarity)] 발굴

한자의 조형성과는 전혀 다르며,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한 조형성의 세계를 열었다는 것을 소홀히 취급하였다. 이것을 오늘의 우리는 ‘독특한 디자인의 창의력’ 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15세기 훈민정음의 창제에서 알 수 있는 반만년의 역사 속에서도 중국과 혼합되어 국권을 지켜오고 고유한 우리의 말을 지켜 온 정신적 힘을 민족 고유의 [유일정신]이라 할 수 있을 것이며, 유일정신이 만들어 온 유일 문화이

며, 유일한 의, 식, 주의 문화를 창조해 온 정신세계를 지켜 왔다. 이 정신의 근원에는 사람 사이에서 널리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의 [홍익 인간(弘益人間)]이 백성의 삶 가운데 오늘도 면면히 이어오고 있다. 백성이란 같은 말을 사용하는 같은 인종(人種)의 문화인류학적 [정체성]으로 또 같은 어족으로, 삶으로 그들의 말을 표기하는 문자로 구별되는 정신, 감정, 정서, 감각들이 공유되는 존재이유가 문자를 통해 역사적으로 이어지고 확립된다. 그런데 백성의 마음과 뜻을 소통(疏通)케 할 문자가 없어 나라의 정체성이 없음으로 훈민정음의 창제 동기는 주권국가의 필수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말은 달라도 문자를 알파벳을 빌려 사용하는 유럽 국가들의 경우를 보면 한자를 빌려 쓰던 조선에서 독특한 문자를 디자인하여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당시의 학문적 체제로는 무척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학(字學)에 몰두하였다는 데 또 하나의 창조적 디자인 연구의 학적(學的) 의의를 발견할 수 있다. 한자의 획과 도형과 [전혀 다름 : Dissimilar]으로 디자인 된 한글의 자학(字學)의 성과에서도 명백하게 나타나 있다. 훈민정음 창제에서 우리에게 주는 디자인 DNA는 형과 형태에 있어서도 [전혀 다름 : Dissimilar]이 행위규범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전혀 다름]은 우리가 창조성의 기질과 성향을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우리는 [따라하지 않음]이 정신적인 맥으로 이어져 온 민족이다. 청자의 신화를 따라함이 없이 분청의 신화를, 그를 따라함이 없이 백자의 신화를 창조하여 왔다.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시대정신을 표현해온 역사를 가지고 있다. 백자는 조선의 시대정신을 그대로 시각화 시킨 창조력에 있는 것이다

첫 번째 다름 : 훈민정음 디자인에는 [다르다는 것을 선언하는 정신]으로 시작한다.

무엇을 시작하든지 시작에 앞서 어떤 정신을 선언하는 일은 개인이나, 사회도, 국가도 마찬가지이다. 이 선언 없이는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다. 우리의 디자인은 이제까지 선언하는 정신적 행위체계 없이 디자인교육이, 디자인 실천행위가 있었음을 반성하고 훈민정음으로부터 새로운 디자인행위체계의 이정표를 설정하여야 한다.

두 번째 다름 : 훈민정음 디자인에는 [다른 언어구조의 체계]를 창안하였다.

우랄아루타이 어족에 속하지만 우리의 언어체계를 문자화하기 위해서는 자음과 모음의 새로운 창안을 통해 우리 말하는 모든 소리가 구조적으로 쓰기에 편리하여야 하며, 읽기에도 쉬워야 하고, 익히기에도 누구나 할 것 없이 글을 깨우

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쉽지 않고, 그 구조를 체계화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한 디자인이 훈민정음의 창안하였다.

세 번째 다름 : 훈민정음 디자인에는 **[다른 소리의 기호체계]**를 창안하였다.

자음의 모양과 모음의 수와 체계를 단순한 기호체계의 형태와 모양을 기하학적 질서 안에서 있게 디자인한 것은 개념의 위대한 시각화의 창조적 결과라고 생각한다. 천지인(天地人)으로 해결한 모음의 체계는 [단순성 디자인의 기적]이 아닐 수 없다. (Simplicity is not easy.)라는 말과 같이 어려운, 아주 어려운 디자인의 문제를 사상을 바탕으로 해결한 표상이다. 이 기호체계의 성과를 오늘 IT시대 후손들이 그 혜택을 보고 있지 않은가?

디자인에서 진정한 창조성이란 [다른 선언], [다른 구조], [다른 소리]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다름이란 [Difference]가 아니라 [Dissimilar]이다.

2장. 한국디자인 DNA-[유일정신] 발굴

훈민정음에서

2 : 한국디자인의 DNA-[유일정신] 발굴

첫 번째 유일정신 : 우리나라는 **고유한 언어를 사용하는 [유일한 민족]**이다.

고유한 언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언어가 담고 있는 고유한 정감, 정서, 감정, 감각이 있어서 고유한 민족 정서의 환경 속에서 살아가며, 언어는 이를 지켜가는 정신의 주체라는 것이다. 그래서 유일한 민족에게는 유일한 인류학적 공동체 정신으로 그들을 영원토록 지켜가는 정신세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 정신세계 안에 한국디자인의 DNA는 [유일한 정신]의 함양이다. 그리고 창조적 정신의 발굴이다.

두 번째 유일정신 : 우리나라는, **고유한 문자를 창안한 [유일한 백성]**이다.

유일한 민족에게는 고유한 말은 있어도 고유한 말을 문자로 표현할 고유한 문

자를 가지고 있지 못한 나라들이 대부분이다. 영어, 불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등이 있지만 고유한 문자는 없다. 그러나 우리에게 고유한 문자의 창안은 한국의 디자인 역시 고유한 정감, 정서, 감각, 그리고 이성인 디자인행위체계를 통해 세계로 내보내야 하는 세기에 이르렀다 여기에서 디자인의 정체성 논의가, 그리고 한국 디자인 DNA 발굴의 그 의미를 가지게 된다. 디자인의 존재 이유는 궁극적으로 [유일한 경우]의 정신세계를 구현하는 것이다.

세 번째 유일정신 : 우리나라는 **고유한 생활문화로 살아온 [유일한 문화]**이다

고유한 민족에게는 고유한 언어가 있고 고유한 생활 세계가 있고, 고유한 정신 문화가 그들의 삶을 풍요하게 영위케 한다. 풍요와 빈곤은 물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문화의 풍요와 빈곤도 있다. 정신문화는 존재를 풍요하게 하지만 물질의 풍요는 인간을 병들게 하기도 한다. 한국디자인이 정신문화를 더욱 풍요롭게 하는 일에 기여해야 할 때이다. 훈민정음은 우리의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디자인의 [경우]로 세계 가운데 유일한 디자인문화를 창조해 가는 행위체계를 확립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세계의 선진국들 사이에서 또 하나의 유일한 문화를 창조해 온 나라라는 것을 오늘의 우리에게 훈민(訓民)하고 있는 것이다.

그 당시의 [유일정신]을 깨닫지 못한 기득권자들의 저항을 살펴보면

창제 사실이 알려진 다음해인 세종 26년 2월 20일 집현전에서 오래 근무한 최만리의 사대주의적 관점에서 비판한 최만리의 상소가 올라오자 세종은 이례적으로 진노하여 말하기를

“너희들이 이르기를, ‘음(音)을 사용하고 글자를 합한 것이(모아쓰기 방식) 모두 옛글에 위반된다.’ 고 하였는데 설총의 이두도 역시 음이 다르지 않으나, 또 이두를 제작한(Designed) 본뜻이 백성(For the people)을 편리하게 (convenience) 하려 함이 아니었겠느냐, 만일 그것이 백성을 편리하게 한 것이라면 이제의 언문도 백성을 편리하게 한 것이다, 너희들이 설총은 옳다 하면서도 군상(君上)이 하는 일은 그르다 하는 것은 무엇이나, 또 네가 운서를 아느냐, 사성칠음(四聲七音)에 자모(字母)가 몇이나 있느냐 만일 내가 그 운서를 바로잡지 아니하면 누가 이를 바로 잡을 것이냐, 또 소(疏)에 이르기를 ‘새롭고 기이한 하나의 기예라’ 하였으니, 내 늘그막에 시간을 보내기 어려워

서적으로 벗을 삼을 뿐인데, 어찌 옛것을 싫어하고 새것을 좋아하는 것이겠느냐, 또 전렵(田獵)으로 매사냥을 하는 예도 아닌데 너희들의 말은 지나침이 있다. 너희들이 시종하는 신하로서 내 뜻을 밝게 알면서도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

같은 날의 기사 중 정창손에 대한 분노는 단단히 화가 난 것이었다. 이역시 전문을 발췌하여 음미하여 볼 필요가 있다

“임금이 말하기를, 전번에 김문(金汶)이 아뢰기를, 언문(諺文:상스러운 망의 문자)을 제작함에 불가할 것은 없습니다. 하였는데 지금은 도리어 불가하다 하고, 정창손은 말하기를 [삼강행실]을 반포한 후에 충신, 효자, 열녀의 무리가 나옴을 볼 수 없는 것은, 사람이 행하고 행하지 않는 것이 사람의 자질 여하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찌 꼭 언문으로 번역한 후에야 사람이 모두 본받을 것 입니까 ‘ 하였으니 이따위 말이 어찌 선비의 이치를 아는 말이겠느냐, 아무쪼록에도 쓸데없는 용렬한 선비이다’ 하였다. 먼것번에 임금이 정창손에게 하교하기를, ‘내가 만일 언문으로 [삼강행실]을 번역하여 민간에 반포하면 어리석은 남녀가 쉽게 깨달아서 충신, 효자, 열녀가 반드시 무리로 나올 것이라 하였는데 전창손이 이 말의 꼬리를 잡아 계달한 때문에 이제 이러한 하교가 있는 것이었다.

이조실록 세종편. 25년 1443년, 26년2월 20일, 21일, -1444 한글번역판 참고 (뒤에 전문 발췌)

이와 같이 훈민정음의 무용론을 들고 나온 당시 기득권자들인 사회지도층 엘리트들의 반대와 싸워야 했다는 것은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오늘날의 우리사회 현실에서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 우리 자신의 문화 정체성을 위해 [열린 역사의 사회]로 가는 길목을 막고 있는 아직도 [열린 역사 사회]의 적(賊)들이 우리 사회의 지식층에서 역사정신의 함양시대로 가는 열린 마음을 닫히게 하는 오늘의 최만리, 정창손들이 있다. 그들의 정당한 이유는 중국에 있었지만 오늘은 ‘세계화’란 이름으로 명분화 하는 논리를 펴고 있다. 복속의 옷을 벗어버리지 못한 사람들(열린사회의 적들)에 의해 역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사회, 현대적이어야 한다는 이유로 역사에 대하여 닫혀진 디자인교육의 현장, [열린 역사]에 반발하는 [닫혀진 역사] 속의 사람들의 행위체계에 대하여 철저한 반성이 있어야 하는 교훈을 훈민정음의 창제 정신은 가르치고 있다.

소(疏)는 ‘막힌 것을 튼다.’ 는 뜻을 가지고 있다. 말과 말을 표기하

는 데 일치하지 못하고 있는 한자로 인하여 막혀있는 많은 문제들을 안고 한글 창제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이러한 반대에도 무릅쓰고 임금이 직접 창제에 앞장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어떠한 충성된 신하가 임금에게 훈민정음 창제의 필요성을 목숨을 걸고 상소한들 이루어 졌겠으며, 오늘 우리가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었을까? 칼 포퍼(Kar R. Popper)는 그의 저서 ‘열린사회와 그 적들’에서 열린사회로 가는 길을 막고 있는 적은 바로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하였듯이 바로 당시 조정(朝廷) 중신(重臣)들 사이에서조차 반대가 극심한 것을 보면 당시의 극심했던 반대가 오히려 세종의 최 측근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사회는 그 구성원들의 인간 본성에 의존한다는 이론과 함께 생물학적 자연주의를 채택한다. 훈민정음은 사람 사이에서 널리 유익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건국이념인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정치적 실천으로 우리 민족의 본성에 따라 마땅히 존중(자연의 법칙 : natural laws)되어야 할 사안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세종대왕에 의해 비밀리에 독단적으로 집행될 수 밖에 없는 한글을 놓고, 신하들이 나쁘다, 좋다, 잘못된 일이다, 잘된 일이다. 아니면 받아들일 수 있다, 받아들일 수 없다는 사안으로 논쟁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은, 절대적 왕정시대에서조차 역사적으로 정당한 행위가 실현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자보여 주는 사건이다, 그러나 훈민정음을 통한 DNA 연구는 우리 역사적 행위의 방향을 세우는 [명분]이 분명하므로 한국디자인의 DNA 발굴 역시 논쟁이 될 수 있으나, 앞으로 우리의 디자인 행위의 방향을 세우는 일이므로 디자인 행위체계의 규범적 법칙(normative laws)의 의미를 가지고 연구되어 갈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디자인 DNA는 [디자인 행위체계의 규범]을 찾아보는 것이기도 하다.

3장. 한국 디자인 DNA-[디자인 명분] 발굴

훈민정음에서

3 : 한국 디자인 DNA-[디자인 명분(名分)] 발굴

디자인행위체계의 명분(名分)에 나타나는 디자인DNA를 논하기 위해서는 일반 생활에서의 행위를 정당화 할 명분을 알아보는 것이 순서이다. 우리 사회는 명분(名分)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생활을 해 왔다. 명분에 대한 국어사전의 정의에 따르면,

1. 각각의 이름이나 신분에 따라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군신, 부자, 부부 등

구별된 사이에 서로 지켜야 할 도덕상의 일로 예를 들어 어떤 일이나 행동을 함에 있어 ‘명분(名分)’을 지키다’라는 말을 하듯, 옛 선비들은 물질이나 자신의 이득보다는 절의나 명분을 중요시하였다. 명분에 어긋남이 없이 행동하였다.

그래서 일을 할 때나 어떤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명분을 내세우는 어떤 이유와, 내세우는 구실이 이치에 맞고, 이치에 어긋나지 말아야 하며, 자신의 이름을 걸 수 있어야 하며, 그러한 가치가 있을 때 그 일에 자신의 이름을 올리는 것이다. 그래서 내세울 만한 명분을 찾는 것이 그 시대로는 시대의 명분이 되는 것이고, 이 명분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기도 하였다. 역사는 백성을 위한 명분, 태평성대를 위한 명분, 자신의 처한 위치에서 명분을 찾아 그 명분으로 자신의 삶을 희생해 온 사람들이 역사를 지켜 왔다.

훈민정음 창제역시 이러한 역사적 명분 없이 출발할 수 없는 사안이며, 이 명분을 지키고 완성하기 위해 은밀하게 진행되었을 것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훈민정음 창제는 분명한 명분을 가지고 있지만 15세기 조선은 개국 초기의 국가였으므로 명분을 내세울 수 있는 정치적, 사회적 시대적 상황이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명분이 있으려면 반드시 [전제조건]이 있어야 하는데 이 전제조건이 훈민정음의 창제 명분이 되는 것이다.

그 명분의 [전제 조건]은 세 가지로 되어 있다.

첫째조건 : 나라의 말씀이 중국과 [전혀 다르다](Dissimilarity)

우리말이 중국과 다르므로 우리말을 옮겨 줄 문자를 만들어야 한다는 첫째 명분을 거부할 명분은 없다. 이 명분에 반대할 이유는 단 한 가지 정치적으로 중국과의 미묘한 정치적 역학관계를 이유로 하는 것과, 한문으로 불편 없이 살아가는 관료들에게는 오히려 불편하다는 이유로 [명분]에 반대하는 이유를 들고 있는 것이다. 사대주의 시각에서의 명분이다. 다르지만 결국 고전을 모방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 것은 한글 창제가 단순히 모양의 유사성(실제 유사한 점이 없음)이 아니라 음운체계의 창제이며, 그 체계의 소프트웨어에 있다는 것을 모르고 그 이유를 든 것이다.

둘째조건 : 백성들이 제 뜻을 피고 살게 하자(For The People)

수많은 백성들이 서로 간에 뜻 펼치고 살아가기 위해 훈민정음을 창제한다는 것을 반대할 명분은 없다. 반대할 이유라면 백성들 간에 뜻이 모여져 민란이

일어 날 우려가 있거나, 백성들의 소리가 높아져 종묘사직에 위협이 있을 수 있다거나. 우미정책에 반하여 정치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이유들로 반대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조건 : 쉽게 쓰도록 만들어야 한다. (be Easy to Write, Easy to Read)

쉽게 쓰고 쉽게 읽을 수 있어야 하며, 우리말의 소리를 온전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명분에 대하여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반대 할 이유는 중국의 좋고 우수한 뜻글이 있는데 아무 뜻도 없는 표음문자는 언문(諺文)으로 상스럽고 속된 말이니 굳이 창제할 필요가 있냐는 것, 드이 이유였을 것이다.

우리가 말하는 명분이란 영어의 ...을 구실로 삼다/make a pretext of 등과 같이 핑계 등과 같은 의미와는 전혀 다르다, 훈민정음을 창제 한다는 것은 적어도 그 명분이 하늘의 뜻(天心)에 따르며 살아 온 민족의 삶과 그 정신에 합한 명분에 있다. 민심천심(民心天心)을 삶의 근본으로 살아 온 민족에게 임금이 해야 하는 마땅한 일하기에 훈민정음은 곧 민심천심(民心天心)의 정치이념을 실천하는 [명분]에서 창제 정신의 중심이 되고 있음을 반포 문에서 명백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4장. 한국디자인 DNA-[행위체계의 명분(名分)] 발굴

훈민정음에서

4 : 한국디자인 DNA-[행위체계의 명분(名分)] 발굴

첫 번째 명분 : 훈민정음에는 하늘의 뜻을 따르는 행위체계의 [명분]이 있다.

하늘의 뜻을 따르는 명분이란 땅으로부터 솟구치는 핑계나, 구실이 아니라 진실로 백성의 마음과 합하고, 하늘을 향해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모든 생활에서 실천해온 우리의 정신문화를 생각할 때 온 인류를 향해 한국의 디자인의 [명분]을 찾는 것이 우리가 세계로 나아가는 길을 여는 것이다. 오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당시 ‘백성을 위하여’ 를 ‘인류를 위하여’ 라는 의미로 확장되어야 한다. 기미독립 선언문에 나타나 있는 명분은 첫째/조선의 독립국임,

둘째/인류평등을 세계만방에 고함, 셋째/자손만대로 민족자존의 정권의 영유이다. 비록 작은 나라이지만 세계를 향한 [명분]은 하늘의 뜻을 둔 민족의 포부인 것이다. 나만 살겠다는 소인적 명분이 아닌 것이다.

두 번째 명분 : 백성 중심의, **백성을 위한, 행위체계의 [명분]**이 있다.

백성중심의 행위체계란 백성의 생활에서 막힌 것을 뚫어주고, 그들의 삶을 보다 격(格)이 있는 생활세계로 향상시킬 진정 한 삶을 위한 디자인(Design for The Real Life)을 [명분]으로 하여야 함을 훈민정음은 일깨워 주고 있다. 그러나 이제까지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의 진정한 가치를 위해, 우리의 정신문화의 가치를 세계화하여 우리의 삶의 정신이 그들의 삶에서도 의미 깊은 가치로 자리매김 되도록 디자인해 오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진정 훈민정음의 정신이 한국디자인의 길이 될 [명분]이 되어야 한다.

세 번째 명분 : 의미를 중심으로 하는 **행위체계의 [명분]**이 있다.

훈민정음의 창제 동기는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려는 목적이나 의의(意義)가 [뜻]을 펴 나아가게 하려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제 뜻을 올바르게 피지 못하는 백성의 마음을 읽고 그 마음이 훈민정음이란 형식을 낳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형식이 먼저가 되어 온 우리가 디자인에서 의미가 디자인행위체계의 [명분]이 되어야 그 다음 형식을 구축하는 과학과 기술이 행위 하게 될 것이다. 과학과 기술은 디자인 의미의 충실한 실천적 행위자로서 기여하게 된다.

네 번째 명분 : 백성 중심의, **백성을 위한, 행위체계의 [명분]**이 있다.

인간의 내면세계는 매우 깊은 갈등, 고통, 등을 참고 견디며 심리적, 정신적 억압 속에서 살아간다. 이러한 억압 중에서 글을 몰라 글을 보고도 무슨 뜻인지 모르고, 소리는 있어도, 가사를 쓸 수 없는 형편이 제일 어려운 것이다. 이러한 한문 시대 진정 먹는 것보다, 입는 것보다, 먼저 우리글을 통해 백성의 마음을 풀어주고, 민족자존의 나라를 지켜주려는 보다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한글창제의 명분이야말로 진정한 디자인 정신인 것이다.

■
제 3부

열린소통 DNA

이런 전초로 어린 백성(百姓)이 니르고져 흠배 이셔도, 뭇춤내 제 뜰들 시러
퍼디 흠 노미 하니라.

커뮤니케이션의 혁명

훈민정음의 문자 끝에 나타난 의 DNA는 [열린 소통(疏通)]에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 소통은 즉 15세기 사회에서 커뮤니케이션의 혁명으로, 오늘 의 의미로는 가장 쉽고 편리한 ‘정보소통의 방식’ 으로 창안되었음을 의미하며, (정보사회에서 IT강국이 된 기반이 된 한글) 정치 철학적으로는 우매한 백성들을 쉽게 가르치고 배움으로 계몽시켜 백성들 사이에 소통에 장애가 없도록 하는 것은 물론 한문으로 관청과 선비들과 백성들 간에 닫히고, 막혔던 세계가 열리게 되었다는 의미에서 새로운 사회계몽이 시작되는 동기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새로운 사회의 시작(어떤 의미에서는 시민 중심의 사회로 이행되어 가는 역사적 계기와 동일시 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을 알리는 것이었다. 이러한 역사적 사건은 그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있을 수 없는 한국 디자인의 사회적, 역사적 사건이 아닐 수 없다는 명분에 의한 의미부여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는 규방문학이라든가, 우리글로 된 소설의 등장, 우리글로 된 시(詩)의 세계가 열리고, 계몽된 근대사회로의 이행을 촉진하는 계기를 주었으며, (파급효과: effectiveness), 한글디자인이 사회사적 시각에서 보면 열린 사회로 가는 생활의 도(道)가 삶과 함께 사회적 합의(social arrangement)가 삼국시대 이후 통합되지 못하고 있는 지역 사이의 많은 문화적 문제들을 통합시켜가는 길을 열어 주었는지 한글은 우리의 역사 안에서 진화되어가는 계기를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다. 즉 백성 중심사회로 가는 확실한 지표(Index)였다고 보아야 한다. 이후 한국미술의 미적 개념의 방향이 이러한 훈민정음의 지표대로 이행되어가고 미적가치와 인간가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전 분야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훈민정음의 창제 정신이 얼마나 영향을 주고 있는지 잘 말해주고 있다.

[Communication conveys information,] 15세기 지구상에서 백성의 의사소통을 위하고, 뜻을 서로 통하게 하고, 깨우쳐주기 위하여 문자를 만들 준 나라가 어디에 있었으며, 서구 기독교 사회에서는 17세기까지도 성경 번역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성직자들의 소유물로 백성들은 감히 접할 수 없었고 오직 벽화나 천정화 등 성화를 통해 설명을 듣고 아는 것으로 그것이 전부였다. 성경이 진정으로 전하는 [신, 구약 정보]는 그들이 이끄는 사회의 규범과 다르기 때문에 위험한 개방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시대 동방의 한 나라의 임금의 백성들을 위하여 [열린 소통(疏通)]의 사회혁명을 일으킬 수 있

는 문자를 만들겠다고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오직 임금이나 백성이 하늘의 뜻과 사이가 없고, 거리가 없는 삶을 따라야 하는 천인무간(天人無間)사상이 뿌리를 이룬 삶의 정신이 근원이 되어 살아 온 민족이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정보소통의 길을 열어 놓는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인간의 비판력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열린사회]로의 이행의 충격을 기득권층은 감수해야 하며, [닫힌 사회]에서 자유롭게 소통되는 사회로의 전환과정에서 [체제의 전복]이라는 위험한 그림자가 있게 마련이어서 [열린사회]의 적들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런데 훈민정음은 임금이 열려 있고, 오히려 신하들이 닫혀 있는 현상이 특이하다. 중국은 황제가 하늘의 아들 천자(天子)이고, 일본은 하늘의 황제를 자칭하는 천황(天皇)이니, 그들의 삶 위에 하늘은 없는 나라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백성이나 임금의 마음에 천훈(天訓 :하늘의 가르침)을 살피는 정신이 있고, 하늘의 마음이 곧, 백성들의 마음에 있다는 민심천심(民心天心) 사상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임금 역시 백성을 늘 생각하며 정치하므로 [나라님]이 할 마땅한 본분을 세종은 실천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정신의 중심에는 역사적으로 누구에나 [하늘의 마음(天心)]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하늘을 향해 열린 마음]과 뜻을 품는 것, 이것이 백성을 위하고 하늘을 향해 [열린 소통(疏通)]이 훈민정음을 통해 창제케 한 것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열린 소통(疏通)]의 정신이 [디자인 정신의 DNA]라 할 수 있다.

Karl R. Popper, 이한구 옮김. '열린사회와 그 적들'
[The Open Society and Its Enemies] 민음사. 1963.

1장. 한국디자인 DNA- [열린 소통의 창조성]의 발굴

훈민정음에서

5 : 한국디자인 DNA- [열린 소통(疏通)]의 발굴이다.

첫째 소통 : 디자이너 세종의 가슴에는 [열린 마음]이 있었다.

임금이 백성을 향해 외견(外見)상으로 열린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정치적 몸가짐일 수 있다. 그러나 세종의 경우는 백성을 향한 열린 마음을 닫힐 수 없어 불쌍히 여기고, 공홀이 여기는 [열린 마음]으로 어려운 정치적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은밀하게 추진하여 한글 디자인을 완성한다.

둘째 소통 : 디자이너 세종의 가슴에는 [열린 열정]이 있었다.

15세기에 훈민정음 창제를 위한 준비된 학적환경(學的環境)이 아니었을 것임은 오늘의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러한 환경의 문제는 진행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난관을 헤쳐나아가야 하는 어려움으로 열정은 식어 갈 수 있다. 그러나 세종의 열정은 이 모든 어려움을 뚫고 갈 [열린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갈 수 있었다.

셋째 소통 : 디자이너 세종의 사상에는 [열린 나라]가 있었다.

조선건국 후 세종은 한국사회는 [열린 나라]로 나아가는 초석을 훈민정음의 창제로 실천에 옮겨 간 국가를 디자인한 사건이며, 이러 인하여 민심천심의 나라가 이어져 가는 길이 되었다. [열린 나라]를 열기위한 제일 먼저 하여야 할 일이 한글 디자인의 창제정신임을 알 수 있다. 세종의 사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모든 백성에게 문자 이용의 혜택을 균등하게 입게 하지는 데는 뜻을 두고, 그 뜻을 서로 주고받으며 피고 살기 위함이었다. 동기와 목적이 백성에 있었으며, 더 깊은 의미는 정보를 교환하며 살아 갈 길을 열어주는 것이었다. 한자의 체계는 그 구조·형식 때문에 기술적(記述的)으로 대단히 복잡하고 특수한 훈련이나 기술(技術)이 없으면 익히기 매우 힘들고, 또 그것을 완전히 익히려면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중국 자체에서조차 이 한자를 완전히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은 일부 소수의 지식·귀족계급에 한정되었다. 그러므로 특히 한국의 경우에도 그것이 귀족·지배 계급의 문자는 될 수 있을 지언정 전체 백성을 위한 서민의 문자는 될 수 없었던 것이다. 세종은 이러한 나라의 형편, 백성 사이 소통의 어려움을 발견하고, 조용히 사회혁신의 기치를 들고 한글창제를 통해 통치의 패러다임을 백성중심으로 치리하는 국가로 디자인한 것이다. 일종의 '정보유통의 혁명' 과도 같은 것이었다.

오늘의 영어열풍이 일어난다 해도 서민의 영어는 될 수 없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영어를 한자로 문자를 대신해 사용했던 시대같이 가령 알파벳으로 된 영어가 15세기 같이 사용되던 시대에 우리말에 합한 문자를 만들고자 한다면 과연 가능할까? 그러한 시대를 상상할 수 없게 만든 것은 우리 문자가 있기 때문이다.

문자는 정신문화의 총체적 열매라 할 수 있다. 문자는 문학과 각종 지식들이 번역되어 백성들을 가르치며, 기록문화의 중심에 문자가 있어 일본도 조선어 말살 정책을 폈으나 문자가 살아 있어 그 계획은 실패로 돌아 간 것이다 만일 문자가 없었다면 동화정책은 성공하였을 것이다. 문화는 생활세계의 중심에 있는 백성의 것이지 결코 일부 지배계급의 특권적 소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것이 훈민정음 창제를 주도한 세종의 의도로 보인다. 이와 같은 그의 이상 실현은 문자생활로 정보유통이 자유로운 사회로 개방하는 것이 당연한 길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세종의 뜻을 받들어 훈민정음 해례 서문을 쓴 정인지도 그 글에서 "한문자가 우리말과 일치하지 않아 학자와 백성(百生)은 그 뜻이 서로 막혀 뜻이 왜곡되는 경우가 많고, 더군다나 나라를 다스리는 관가의 각종 법률 공포나, 가치의 옳고 그름을 가려내기가 몹시 어려웠다. 따라서 학문의 연구나 국가의 정사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 것이다. 소통에서 뜻의 정확한 소통을 위해서는 [뜻의 와전]이나 [뜻의 애매성]은 백성 중심의 사회에서 풀어야 할 사회적 과제이다.

무엇보다 뜻이 글로 통하는 생활세계를 디자인하였다.

훈민정음에 나타난 중요한 DNA는 [뜻을 중시하는 정신]이다. 오늘의 시대적 언어로는 콘텐츠(Contents)를 형식(Style or Form)보다 우선하는 디자인정신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형식은 빌려올 수도 있고, 내용이 있는 것 같이 위장될 수 있는 것이 형식이다. 그것은 형식은 '내용화된 형식' 이므로 형식에는 내용이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수 있는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뜻을 중시하는 정신은]이 내용[contents / Connotation]를 의미한다면 뜻을 나타내는 형식 외연(Style / denotation)은 문장의 형식이라면 문자는 이를 표현하는 도구이다. 도구가 정확하지 않으면 소통에 문제가 많다. 한자의 뜻글이 지닌 뜻의 전달 과정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세종은 우리가 말하는 말의 소리를 잘 표현할 수 있다면 말이 지닌 의미는 왜곡 없이 잘 소통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소리를 표현할 기호와 이를 종이 위에 쓸 수 있는 기호, 읽을 수 있는 기호체계로 표음문자로 디자인하려는 [뜻]이 매우 창의적 생각(Creative Idea)이다. 그리고 우리말의 소리를 표현하기 위해 [모음]체계를 디자인하는 것은 어려운 일로 문제를 풀어 낸 소리가 백성들 사이에서 자유롭게 표현되도록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한계를 딛고 우리 한글의 [모음]과[자음]의 모아쓰기 체계로 소리 기호체계의 구조를 [디자인]해 낸 것은 실로 놀라운 [독창적 기호체계의 디자인]이다. 이 디자인 접근 방법이 기록으

로 남겨지지 않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모방할 수도, 참고할 수도 없는 새로운 방법을 차자내야 했을 것이다. 이는 오늘 우리가 디자인에서 말하는 **[합리적]** 이거나, **[과학적]**이라고 말할 수 없는 **[어떤 이치]**에 따른 독특한 방법을 창안 했을 것이며, 디자인은 지식의 대상이 아니라 지혜로 문제를 풀어가는 창조적 행위라는 본인의 견해와 일치하는 것이었다. 소리를 내는 구강 구조에 대한 연구와 자학(字學)의 완성을 독자적으로 이루어 낸 성과일 것이다. 그러나 기록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명심할 훈민정음의 디자인 DNA는 이정에 없었던 것에 대한 도전 발명적 디자인(Inventive Design), 새로운 이치로 발견된 디자인(Discovery Contents Design)이다. 즉 **[틀에 박혀 있지 않은 생각]**, 우리말과 소리의 경우에 따른 **[경우의 존중]**에 따라 **[경우에 충실한 경우의 디자인]**으로 창의성을 발휘하는 자세(Design Attitude)가 한국디자인 **[Design Attitude의 DNA]**라고 할 수 있다.

백성들이 제 뜻을 올바르게 펴 나아갈 수 있도록 표기 할 수 있는 우리언어의 경우를 존중하는 철저한 연구는 자기존중의 경우를 찾아내려는 [디자인의 지혜(Wisdom of Design)]의 길이다. 이 길은 일정한 방법론적 디자인(The Way of Design)이 아니라, 어떠한 관념에 붙잡히지 않고 길을 찾는 디자인의 도(道)(Tao of Design)의 역사적 표본이라 할 수 있다. **[경우에 충실한 경우의 디자인]**은 디자인의 도(道 : Tao of Design)라고 할 수 있다.

2장. 한국디자인 DNA-[경우의 창조성] 발굴

훈민정음에서

6 : 한국디자인의 DNA-[경우의 창조성] 발굴

첫째경우 : 훈민정음은 **[하나의 경우]**의 언어독립성을 천명하였다.

중국, 한국, 일본이란 동북아 경우 안에 한국의 독특한 경우를 확립한 사건이다 일본은 한자의 경우 안에서 변용된 것이지만 한국은 한자와는 경우가 다른 경우를 확립했다.

둘째경우 : 훈민정음은 **[민족의 경우]**를 세계에 알려주었다.

15세기에 훈민정음 창제를 위한 준비된 학적환경(學的環境)이 아니었을 것임은

오늘의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러한 환경의 문제는 진행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난관을 헤쳐나아가야 하는 어려움으로 열정은 식어 갈 수 있다. 그러나 세종의 열정은 이 모든 어려움을 뚫고 갈 [열린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갈 수 있었다.

셋째경우 : 훈민정음은 [문화의 경우]를 한글 창제로 실천하였다.

조선건국 후 세종은 한국사회는 [열린 나라]로 나아가는 초석을 훈민정음의 창제로 실천에 옮겨 간 국가를 디자인한 사건이며, 이러 인하여 민심천심의 나라가 이어져 가는 길이 되었다. [열린 나라]를 열기위한 제일 먼저 하여야 할 일이 한글 디자인의 창제정신임을 알 수 있다. 세종의 사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3장. 한국디자인 DNA-[이치의 디자인 도] 발굴

훈민정음에서

7 : 한국디자인의 DNA-[이치(理致)의 디자인 도(道)] 발굴

이치(理致)를 따르는 길에는 막힘이 없다. 인간이 자연과 함께하는 디자인을 하는 경우 자연은 그 자연의 이치(理致)에 따르는 것과 역행하는 것으로 따르기 위해서는 이치(理致)를 궁구(窮究)하여야 하며, 역행하기 위해서는 모든 행위들은 과학과 기술에 의해 자연의 이치를 차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근본은 ‘나(我)’의 본연(本然)에 따르는 것과, 역행함에 따라 나타난다.

이(理)와 기(氣)와 성(性)과 정(情)을 한 몸이라고 이해하는 관념에 따라야만 본래 태어날 때부터 스스로 그러하게 타고난 본연지성(本然之性)과 태어난 기질(氣質)에 따른 기질지성(氣質之性)의 관계를 알 수 있다. 한국 디자인에는 한국인의 기질지성(氣質之性)이 마땅히 나타나야 하며, 기질지성(氣質之性)과의 관계로 풀어가야 한다. 그래야 창조성의 이(理)가 디자이너의 기질을 따라 발휘(發揮)하게 된다. 서양의 합리주의나 그들의 문명적 토대위에서 형성된 합리적(合理的) 방법은 우리의 본연지성(本然之性)에 따라 기질지성(氣質之性)에 의한 창조성은 자기 정체성을 잃게 되는 것이며, 이치에 어긋나는 길인 것이다. 이와 같이 한국디자인의 정체성 역시 이치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 이를 다른 말로는 우리가 우리의 본연지성(本然之性)과 기질지성(氣質之性)에 따라 디자인 하는 것은 [합리적]이며, 그렇지 않은 것은 [비합리적]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치에 따라 디자인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다.

우리의 디자인 속에는 우리의 기질지성(氣質之性)이 스며들(滲透)은 바뀌거나,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정체성이 영속될 수 있는 것이다. 훈민정음에는 잡된 것이 섞여 있지 아니하다. 본연지성(本然之性)과 기질지성(氣質之性)은 섞이지 않고 일생 동안 한결같으며, 치우치지 아니하

며, 가운데 중심을 지키는(精—執中) 디자이너의 중심과 한국디자인의 중심이 통하는 한국 디자인의 몸(體)을 보존하게 된다. 쓸용(用)에 대응하는 마음의 법(心法)은 모두가 밖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창조성은 안으로 마음과 성(性), 즉 본연지성(本然之性)과 기질지성(氣質之性)에서 찾으려다 될 수 있는 것이다.

디자인 창조성이 안으로 부터는 인의예지(仁義禮智)인 사덕(四德)에서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훈민정음 창제와 디자인 정신에는 백성을 향한 어진마음(仁)이, 하늘의 뜻을 따라 의의(義)를 실천하려는 마음과 정신, 자연의 이를 따라 문명으로 파괴된 지구환경을 구하는 슬기로움(智慧), 인류에 대하여 예의 바름의 자세가 갖추어진 디자인이 도리(道理)를 다하는 것 이것이 [이치의 길(道)]을 가는 디자인이다.

첫째경우 : 훈민정음은 [이치 존중]의 창조성

배가 물로 가고, 수fp가 육지로 t가는 것이 이치를 따르는 것이며, 수fp가 물로도 가게하고, 배가 육지로도 가게 하는 것으 s이치에 어긋나는 것이다. 과학기술을 의지하는 문명은 이치에 역행하지만 이치에 맞는 문명은 자연의 이치에 따른다. 따라서 자연의 이치를 존중하는 디자인, 자연의 이치를 따라 만들어지는 문명은 이치를 문명화 한다. 훈민정음의 독창성이나, 과학성은 이치에 따른 디자인의 길을 안내하고 있다.

둘째경우 : 훈민정음은 [지혜의 이치]에 따른 창조성

지혜는 인간의 경험과 지식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다. 자연의 이(理)를 따르는 질서의 원리는 매우 역학적이며, 물리학적 질서이다. 그래서 과학의 법칙에 의한 지식을 도구로 하지 않고 그 지식을 사용할 자연의 이치(理致)를 깨닫은 지혜로 집을 짓거나, 디자인을 하면 자연과 함께 숨 쉬는 디자인을 창조할 수 있다. 훈민정음은 이치에 합한 지혜로 디자인된 사건이다.

셋째경우 : 훈민정음은 [이(理)기(氣)승(乘)]의 창조성

마음(心)과 성(性)은 주체적 측면이고, 이(理)와 기(氣)는 객체적 측면이다. 앞에 것은 사람의 진리가 되고, 뒤의 것은 하늘의 진리(天道)가 된다. 사람의 진리(人道)로 하늘의 진리(천도(天道))에 이르게 되며, 주체로부터 객체에 이르는 과정은 중간에 앎(知)과 실천(行)을 통해 마음과 성 즉 사람의 길이 하늘의 진리와 하나로 합치는 논리 구조를 이루게 된다. 하늘의 뜻(理致)를 알아서 기(氣)가 일어나야 하는 것과 같이 훈민정음 창제는 하늘의 뜻으로 깨달아 기(氣)를 일으켜 행한 것이다. 디자인은 앞으로 더 높은 뜻을 깨달아 동기를 일으키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디자인 DNA는 어디에도 붙잡힘이 없고, 어떤 관념에도 잡힘이 없이 [창조성의 도(道:Tao of Creativity)]를 실청한 것임을 발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창조성의 도]를 어떻게 이해하여야 할까? 한글의 자학(字學:Form & Shape of New Alphabet)을 디자인할 때 일반적 방법대로 고대의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참고하면서 그 기초적 연구를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음운을 체계화하고 이에 따라 시각화하고 사용자(백성) 우선(UI)의 조형성(form and Shape)을 해결하려는 의도로 볼 때 오늘 우리가 디지털 시대의 이슈인 유 아이 디자인(UI : User Interface Design)의 관점에서 문제를 풀어야 했을 것이다. 이러한 창의적 시각화를 위한 문제 해결의 쟁점(Issue for Creative Visualization)을 사용자가 중심이 되어 만족할 체계로 디자인하는 것이 핵심과제라면 당연히 만든 사람들의 일방통행의 장치를 내 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의 세계에서 한글의 우수성이 증명된 현실에서 보면, 말하는 사람들의 소리 나는 입과 구강의 구조를 살피는 지혜를 구하였을 것이다. 지금까지 한글만큼 성공한 예가 어디에도 없고, 지금도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유일한 소리문자인 것을 보면 ‘창조성의 도’는 진리의 도(天道), 하늘의 이치를 따르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정연종의 저서 [한글은 단군이 만들었다]라는 그의 글을 발췌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는 흔히 한글을 세종대왕이 창제했다고 알고 있다. 그런데 『세종실록』에는 한글 이전에 다른 글자가 있었음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세종 25년 개해 12년, 훈민정음창제 첫 발표문을 보면, “이달 상감께서 친히 스물여덟 자를 만드시니 그 자는 고전(古篆)을 모방한 것이다.”라는 구절이 나온다. 또한 세종 28년, 9월 정인지가 쓴 해례 서에는 “...가로되 훈민정음이라 하시니, 상형하되 글자는 옛날의 전자(篆字)를 본떠서...”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내용은 당시 집현전을 대표하던 학자로서 한글창제를 반대했던 최만리 등이 올린 상소문에도 나온다. “언문은 모두 옛 글자를 근본 삼은 것으로 새로운 자가 아니라고 하신다면 곧 자형은 비록 옛날의 전문(篆文)을 모방하였더라도...” 저자는 한글창제 당시의 이러한 기록에서 한글 이전에 문자가 있었고 세종대왕은 한글을 재창조한 것임에 착안하게 되었다.

그래서 한글 이전의 문자를 『환단고기』와 『단기고사』를 통해 찾게 된다. 『환단고기』 「단군세기」를 보면 단군3세 가락 임금 때인 B.C. 2181년에 “삼랑(三郎) 을보록(乙普勒)에게 명하여 정음 38자를 만들게 하니 이것이 ‘가림토(加臨土)’이다”는 기록이 나온다. 그리고 『단기고사』에는 단군조선 개국 초기에 만들어진 가림토 문자가 그 후 어떻게 발전하면서 문명의 역사를 열어갔는지 보여주고 있다.

가림토와 한글의 글자모양을 비교해보면 그 연관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여기에서 저자는 가림토와 한글은 태극에서 파생된 문자이고 음양오행의 원리가 집약된 것임을 밝히고 있다. 또한 저자는 한국, 일본, 인도, 몽고, 중국지역에 널리 퍼져있는 가림토를 비교하면서 단군조선이 통치하던 광대한 영토를 확인하게 된다. 일본의 신대문자는 가림토 문자의 모습 중 5자, 자음 27자 중 6자를 쓰고 있으며, 인도 남방 구자라트 주에서 쓰고 있는 문자는 자음에서는 상당수가 같고 모음은 10자가 같은 것을 밝히고 있다. 즉, 알타이어의 사용범위가 터키, 몽고, 티베트, 만주 통구스어, 한국어, 일본어 등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볼 때 그 문자의 원형이 가림토 문자였음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이러한 글의 내용은 다음에 [한글 풀] 부분에서 말하겠지만 내용상 인식의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관하여는 한글의 자형(字形 : Form and Shape of Hangeul Alphabet)에서 자세히 설명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훈민정음에서 뜻을 피기 위해 [독창적 방법]과 [독창적 사고 형태]로 그 문제해결의 길(道)을 찾아 가는 창조적 사고 길이 자연과학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4장. 한국디자인 DNA-[사덕의 길] 발굴

훈민정음에서

8 : 한국디자인의 DNA-[사덕(四德)의 길] 발굴

첫째경우 : 훈민정음 [어짚(仁)]의 창조성

훈민정음은 너그럽고 어진 마음(仁), 어짚(仁)은 의로움(義), 예의 바름(禮), 슬기로움(智)을 거느리지 않고는 어짚의 창조를 할 수 없다. 어짚(仁)은 사람(人)에서 그 뜻이 유래 된 것으로 사람 됨의 근본이요,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만물을 대하는 마음이다. 디자인이 백성들을 어진 마음으로 바라 볼 때 디자인 창조성의 동기를 발견하고, 의를 행할 단계에 이르게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경우 : 훈민정음 [의로움(義)]의 창조성

나를 향한 하늘의 뜻은 백성들의 마음이 무엇을 원하고 있으며, 무엇으로 그들

이 막혀 있는지 그 막힌 것을 뚫어주는 것이 디자인이며, 15세기 그들의 사이에 막혀 있는 글이 없음으로 답답하게 살아가는 백성들의 대한 가여워 슬퍼하는 측은지심(惻隱之心)이 없이는 의(義)를 행할 수 없다. 그리고 무엇이 의로운 행동인지 알지 못한다. 민심천심(民心天心)을 알고 민에게 의를 행하려는 마음으로부터 창조성의 열정이 솟구치는 것이다. 훈민정음은 이러한 의로움으로 시작된 것이다.

셋째경우 : 훈민정음 [예의 바름(禮)]의 창조성

임금이나 선비들은 그들의 존재 이유를 백성의 마음을 임금이나 관리들에게 전하여 목민관(牧民官)으로 하여금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풀도록 하는 것이 백성에 대한 예(禮)를 바르게 하는 것이며, 나라에 대하여나 역사에 대하여 예(禮)를 다하는 것이라 하였다. 무시하는 마음으로 백성을 보지 않고, 성실한 마음으로 백성을 대하고, 겸손하게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대하는 것이 예(禮)가 바른 것이라는 정신에서 창제된 훈민정음에서 성의정심(誠意正心)을 발견할 수 있으며 이것이 예의 바른 것이라 하겠다.

넷째경우 : 훈민정음 [슬기(智)]의 창조성

임금이나 선비들은 그들의 존재 이유를 백성의 마음을 임금이나 관리들에게 전하여 목민관(牧民官)으로 하여금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풀도록 하는 것이 백성에 대한 예(禮)를 바르게 하는 것이며, 나라에 대하여나 역사에 대하여 예(禮)를 다하는 것이라 하였다. 무시하는 마음으로 백성을 보지 않고, 성실한 마음으로 백성을 대하고, 겸손하게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대하는 것이 예(禮)가 바른 것이라는 정신에서 창제된 훈민정음에서 성의정심(誠意正心)을 발견할 수 있으며 이것이 예의 바른 것이라 하겠다.

5장. 한국디자인 DNA-[전혀 새로운 디자인] 창조성

훈민정음에서

8. 한국디자인DNA-전혀 새로운 디자인 창조성

첫째경우 : 훈민정음 [새로운 기하학]의 창조성

오늘의 디자이너들이나 예술가들, 대부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문화와 예술을 말할 때 “우리 문화에 기하학적 ‘개념’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기하학적 해석 없이 건축이 될 수 없으며, 가구도, 도시도 만들어 질수 없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글 꼴의 기하학적 창조성은 15세기 이후 세계 어느 나라에서 도 찾아 볼 수 없는 독창적 문자 세계의 창조성이며, 이러한 창조성의 근원이 이치를 따라 창조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뒤에 서술)

둘째경우 : 훈민정음 [새로운 구조]의 창조성

소리글에서 모아쓰기 방식을 통해 소리의 표현을 자유스럽게 쓸 수 있도록 한 자음과 모음의 모아쓰기 방식의 구조는 독창적이며, 매우 논리적이며, 독특한 구조의 창조이다. 초성자음과 중성중성자음의 구조와 중성의 모음체계에 의해 자유자제로 소리를 낼 수 있고 기록할 수 있는 새로운 구조의 창조성은 우리의 의식 가운데 구조주의적 사고가 창의성의 근본이 되고 있음을 두렷하게 나타내고 있다.

셋째경우 : 훈민정음 [새로운 길]의 창조성

훈민정음 창제 이전 사회와 이후 사회는 전치, 문화, 예술 및 생활 전반에 걸쳐 전혀 다른 사회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 왔다. 15세기 서양에서 일어난 르네상스의 문예부흥운동기와 같은 시기에 백성들을 위해 소통의 혁신을 이루고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문자를 열어주어 문화민족 정체성을 열어 간 길을 열어준 새로운 사회를 탄생시켰다.

■
제 4부

휴머니티 DNA

셋째, 사름마다 히여 수비 니겨 날로 뿌메 한(便安) 호고져 흙 썩르미니
라.

쉽게, 더 쉽게, 아주 쉽게, 그리고 편리하게

현대 디지털 기술 문명의 길에서 목표를 하는 것은 어떠한 사람에게도 더 쉽게, 더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더 빨리 익힐 수 있도록 진보하고 있다. 이러한 정신은 훈민정음에 잘 나타나 있다. 백성들 누구나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으려면, 사용하기 쉬어야 하며, 쉽게 배울 수 있어야 하며, 쉽게 필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편안하려면 뜻을 표현함에 막힘이 없어야 한다. 언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 이미 생활의 일상에서 통용되어 온 우리의 언어이다. 우리의 언어뿐만 아니라 이웃 중국이나 일본의 경우 모두 서로 이질적인 현상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우리말이 다른 문자의 표기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필수적인 것이다. 우리말의 발화(發話)도 복잡 다양한 요인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문자의 창제는 많은 난관에 부딪히게 될 것이 분명한 것이었을 것이다.

가령 소리가 나오는 과정을 입, 성대, 혀로 나누어서 관찰해 볼 때에도 말하는 화자(話者)가 소리와 파장에 실리는 감정이 의미작용과 조화로워야 함으로 모음의 수가 많아야 할 문제를 안고 있다. 일상에서 문자가 없는 시대에서 해 온 말의 소리를 그대로 불편 없이 발음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소리가 자연스럽지 못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자와는 달리 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쓸 수 있어야 편안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훈민정음의 기능적 측면에서나, 사회사회적 입장에서 [보편성]과 [쉬어야 함]은 하나의 짝이다. 그리고 이러한 키워드(Key-Words)는 현대 디자인의 키워드와 동일하다.

세종의 생각은 한문을 접하지 못한 백성들에게 한서(漢書)의 내용들을 섭취하는데 도움을 주자는 데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뜻은 《동국정운》의 편찬으로 자주적인 입장에서 중국문화를 적극적으로 섭취하기 위한 방편에서 나타난 것임을 뜻한다. 《홍무정운》을 한글로 번역하여 빈번한 중국과의 접촉에서 중국어 습득이 불가피한 만큼 중국어에 대한 표준적인 운서(韻書)를 정함은 당연하였다. 그러나 이 두 책에 수록된 한자음을 정확하게 표기하기 위하여 재래의 반절식(反切式)으로도 불충분하고 또 불편하기 이를 데 없었다. 여기에서 훈민정음과 같은 표음문자(表音文字)의 제정이 더욱 절실히 요청되었던 것이다.

표음문자 가운데 음절문자보다는 단음문자가 더 표음성이 강하다. 단음문자에는 자음만을 보여주는 문자(셈어), 자음과 모음을 다 같이 표시하되 자음이 기초가 되고 모음은 단지 부가적 기호로 쓰이는 문자(인도문자) 및 자음자와 모음자를 동등하게 취급하는 문자(그리스문자 · 로마자 등)가 있다. 이는 모음수가 적어 표음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표음이라고 해도 음성기호와 는 달리, 그 언어의 음을 발음되는 대로 충실히 표기하지는 않는 경우가 보통이며, 소리가 역사적으로 변화한 데 대하여 표기는 단어마다 고정되어 있는 경향이 있으므로 발음과 표기가 1대 1의 대응을 이루지 않는 경우도 있다. 한글은 자음과 모음을 합하여 음절을 표시하는 모아쓰기로 하나의 문자 꼴을 만든다는 점에서 음절문자의 성격도 가지나, 그 문자를 분해하여 단음으로 환원시킬 수 있는 단음문자의 성격이 강하여 단음들이 모여져 다양한 소리를 내기 위해 모음의 체계가 일찍이 유례를 찾을 수 없는 표음체계이다. 그래서 표음문자 중에서도 한글이 우리말에 대한 확실한 표음체계로 창안되었다는 것에서 그 독특성을 볼 수 있다.

세계의 많은 민족들이 자기의 언어를 표기하기 위하여 문자를 만들려고 노력하였으나, 한글과 같이 일정한 시기에 특정한 사람이 이미 사용하고 있는 한자(漢字)에 직접으로 영향 받지 않고 독창적으로 새 문자를 만들고, 한 국가의 공용문자로 사용하게 한 일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다. 더욱이 새 문자에 대한 해설을 책으로 출판한 일은 유례가 없었던 역사적인 일이었다. 특히, 이 책에서 문자를 만든 원리와 문자사용에 대한 설명에 나타나는 이론의 정연함과 엄정함에 대해서는 세계의 언어학자들이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다.

훈민정음, 곧 한글은 28자로 된 알파벳으로, 오늘날에는 24자만 사용되는데, 한국어를 완벽하게 표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배우기와 사용하기에도 편리한 문자체계이다. 문자 체계 자체로도 독창적이며 과학적이라고 인정되고 있어 그 의의가 크다 할 것이다.

표음의 정확성을 성취한 한글 디자인은 과학적 사고의 바탕에는 이치를 존중하는 지혜가 근본을 이루고 있다. 그것은 인간의 목을 통해 나는 소리에 충실하려고 한 노력이 이미 지혜에 따른 접근이다. 지식은 방법론적 사고를 발전시키지만 지혜는 ‘깨달음’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다르다. 지혜의 눈으로 살펴보면 훈민정음이 오늘 한국디자인의 [내용상의 관심]이 얼마나 철저해야 하는지를 깊이 반성해 볼 수 있다. 과연 과학적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는 과학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이치(理致)에 맞고, 사람이 발음하는 순리(順

理)에 따라 지혜롭게 연구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초성자음(初聲字音)과 중성모음(中聲母音), 그리고 종성자음(終聲字音)의 모이쓰기 구조로 음을 표시한 것은 중성모음(中聲母音)의 체계를 통해 표음의 세계를 넓힌 것은 지구상에서 언어로 소리 낼 수 있는 발음을 독창적인 구조의 디자인으로 낼 수 있도록 한 것임을 디지털 인터넷 시대에 검증되고 있는 것이다.

〈내용〉 책으로서의 내용은 처음에 훈민정음 제정의 동기와 취지를 밝힌 세종의 서문과 예의(例義)로 된 본문 및 훈민정음의 제자(制字) 원리와 용례를 해설한 해례, 그리고 끝으로 정인지의 해례 서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해례 부분은 ① 제자해(制字解), ② 초성해(初聲解), ③ 중성해(中聲解), ④ 종성해(終聲解), ⑤ 합자해(合字解), ⑥ 용자례(用字例)로 세분된다.

〈초성의 제자원리〉 훈민정음 해례 제자해에 의하면 초성 중 기본자(基本字: ㄱ · ㄴ · ㄹ · ㅅ · ㅇ)는 그 자음(字音)이 나타내는 음소(音素)를 조음(調音)할 때의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떴다고 하였다. 곧 설음(舌音: ㄴ), 순음(唇音: ㄹ), 후음(喉音: ㅇ)에서 불청불탁(不淸不濁)으로 기본문자를 삼은 것은 그 소리가 가장 약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차음(齒音)에서 'ㅅ'과 'ㅈ'은 비록 둘 다 전청(全淸)이지만 'ㅅ'이 'ㅈ'에 비하여 그 소리가 약하기 때문에 기본자로 삼았다. 다만 아음(牙音)에서 불청불탁(ㅇ)을 기본문자로 삼지 않은 것은 그 소리가 후음(喉音)의 'ㅇ'과 비슷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 밖의 초성자(初聲字)들은 이들 기본자에 가획(加畫)하거나 또는 약간의 이체(異體)를 형성함으로써 만들어졌다. ㄱ → ㅋ(ㄱ), ㄴ → ㄷ → ㅌ(ㄴ), ㄹ → ㄴ → ㄷ, ㅅ → ㅈ → ㅊ(ㅅ), ㅇ → ㅎ → ㆁ에서 'ㅇ · ㄷ · ㅊ' 3자는 이체를 형성한 경우이다. 그리하여 전탁(全濁) 계열의 각자병서(各自竝書) 6초성을 합해서 훈민정음의 23초성체계가 이루어졌다. 이 23초성체계는 동시에 《동국정운(東國正韻)》의 자모체계(字母體系)이기도 하다. 위의 23초성에서 후음(喉音) 전청(全淸) 'ㅇ'은 훈민정음 해례 용자례에서 제외되어 있다. 그것은 이 초성이 《동국정운》의 한자음(漢字音) 표기를 위하여 마련된 것이기 때문이다. 또, 전탁계열의 초성 각자병서는 모두 전청을 병서하였고 다만 후음의 'ㆁ'만이 차청(次淸)을 병서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제자해에서는 전청의 소리가 엉기면[凝] 전탁이 되는데 유독 후음은 차청으로 전탁이 되게 한 것은 전청인 'ㅇ'이 소리가 깊어서 엉기지 아니하므로 이보다 소리가 얇은 'ㆁ'으로써 전탁을 삼았다고 하였다. 이들 각자병서는 주로 《동국정운》의 한자음 표기에 사용되었다. 이 훈민정음 초성체계에 대하여 훈민정음 해례 초성해 첫머리에 "정음초성은 곧 운서(韻書)의 자모이다(正音初聲卽韻書之字母也)"라고 하였는데, 이는 정음의 초성체계가 중국 음운학(音韻學)의 자모체계와 깊은 관련성이 있음을 말해 준다. 무엇보다도

같지만 촉급(促急)하다"고 하였다. 훈민정음 언해에 의하면 평성은 '가장 낮은 소리', 상성은 '처음이 낮고 나중에 높은 소리', 거성은 '가장 높은 소리', 입성은 '빨리 닫는 소리'라 해석하였다. 이 해석과 위의 훈민정음 본문 및 해례 합자해의 설명으로 미루어 보면 당시 국어에는 '평·상·거'의 3성만의 성조가 존재하였으며, 그것도 저조(低調)와 고조(高調), 그리고 이들의 병치(並置)인 상성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훈민정음 반포 당시의 사용계층은 주로 평민들과 대부분 상인들이사용을 했다고 한다. 그 이유는 당시의 양반들은 "명나라가 사용하는 언어가 있는데 왜 명나라가 쓰는 글을 내버려두고 어찌 훈민정음을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쓰게 하느냐" 라고 양반들의 대부분은 훈민정음 사용을 안 하였다. 그래서 백성들의 대부분만 사용한다고 해서 격이 다르다고 생각한 양반들은 우리를 가르치는 글은 한문이지, 우리의 바르게 가르치는 한글 훈민정음이 아니라고 무시하였다. 이는 15세기의 동시대 상황에서어디에서도 용납되지 못한 백성을 위한 임금이 주도하는 사회개혁이었다.

1장. 한국디자인 DNA-[쉽고 편리한] 구조의 장의성

훈민정음에서

8 : 한국디자인 DNA-[쉽고 편리한] 구조의 디자인 정신 발굴

우리는 역사에 빛 진자들이다. 훈민정음은 우리에게 준만큼 우리는 한글을 확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면 훈민정음만큼 오늘 우리에게 크게 기여하는 것이 있을까?

첫째 : 훈민정음은 [쉽고 편리한] 소리체계를 디자인

한국말의 소리를 언어의 음운(音韻)체계로 구조화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훈민정음은 21세기 디지털 시대에서도 완벽한 소리의 기호체계로 문자가 없는 나라에서 한글을 문자로 사용하는 움직임이 활발한 것을 보면 쉽고 편리한 소리체계의 질서를 디자인한 것은 훈민정음이 세계에 내 놓은 인류의 성과로 평가되고 있는 것이다.

둘째 : 훈민정음은 [쉽고 편리한] 모아쓰기 구조를 디자인

한글의 모아쓰기 방식은 소리를 체계화하는 모든 문자의 세계에서 단연코 독창적 구조이다. 쉽게 배워 쉽게 발음하고, 쉽게 쓸 수 있도록 디자인된 것은 한글이 최초이며, 역사상 마지막일 것 같다. 모아쓰기 방식이 구조적으로 어려운 체계인 것 같으나 백성들이 쉽게 배워 사용하는 것을 보면 그 구조가 얼마나 완전한 구조로 디자인 된 것인지를 잘 알 수 있다.

셋째 : 훈민정음은 [쉽고 편리한] 기호체계를 디자인

조선건국 후 세종은 한국사회는 [열린 나라]로 나아가는 초석을 훈민정음의 창제로 실천에 옮겨 간 [국가를 디자인]한 경우이며, 이러 인하여 민심천심의 나라가 이어져 가는 길이 되었다. [열린 나라]를 열기위한 제일 먼저 하여야 할 일은 [열린 소통]의 수단 한글이 있어야 한다. 글을 쓸 수 있는 문자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사용자 중심(UI)의 기호체계의 디자인은 세종의 사상을 명백히 말할 수 있으며, 이러한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2장. 한국디자인 DNA-[쉽게 쓰고, 소리내고 배움] UI 구조의 디자인

훈민정음에서

9 : 한국디자인 DNA-[쉽게 쓰고, 쉽게 소리내고, 쉽게 배움] UI 구조의 디자인

우리는 역사에 빛 진자들이다. 훈민정음은 우리에게 준만큼 우리는 한글을 확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면 훈민정음만큼 오늘 우리에게 크게 기여하는 것이 있을까?

첫째 : 훈민정음은 [쉽게 쓰는] 문자기호를 디자인

한문을 배우지도 못해, 읽지도, 쓰지도 못하는 사람들일지라도 한문의 문자가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 기호로 되어 있는지를 모르는 백성은 없었다. 한문의 초서의 흘림 글씨로부터 예서에 이르기까지 붓으로 쓰여진 한문의 다양한 형

태의 변화를 읽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더군다나 글씨를 쓰는 사람의 개성에 따라 흘림이 다른 글의 환경에서 살아 온 백성들이 쉽게 쓸 수 있는 전혀 다른 문자기호를 사용자 중심으로 디자인한 창조성

둘째 : 훈민정음은 [쉬운 소리]-모음구조를 디자인

말과 문자가 다른 생활의 이중 구조의 사회에서 일상에서 백성들이 말하는 소리를 새로운 문자를 접하면서 소리를 쉽게 제대로 낼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그들을 위해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이러한 문제를 명확하게 인지한 결과 모음의 구조가 중요함을 깨달아 디자인이 시작된 것이다. 쉽게 소리를 낼 수 있고 어느 소리도 거침 없고, 왜곡 없이 내야 하므로 이웃 중국어 발음까지도 소리 낼 수 있는 모음 체계를 창조하여 오늘은 물론 앞으로 세계 가운데 빛을 낼 것이다.

셋째 : 훈민정음은 [쉽게 배움] 간결한 기호로 디자인

언어와 문자의 관계는 언어의 의미와 소리의 음조에 따라 감정, 감각, 정서 등이 다르게 전달된다. 이 어려운 말과 문자, 그리고 언어를 쉬우면서도, 쉽게 배울 수 있지 않으면 뜻을 이룰 수 없다.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의 기호와 구조를 디자인 하기란 오늘에 이르러서도 창제하기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한글의 위대한 탄생의 성과는 쉽게 배울 수 있다는 것에 있으며, 지구상에서 가장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 언어로 디자인된 것이다.

■
제 5부

한글 자형 디자인의 창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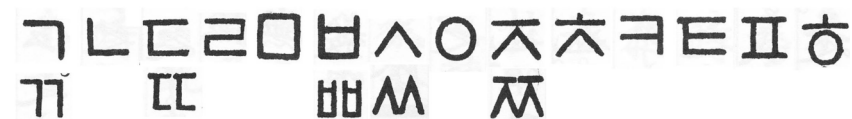
한글 자형 디자인의 조형적 독창성



(훈민정음 해례는 해설서로(1446). 정인지, 최항, 박팽년, 신숙주, 성삼문, 강희안, 이개, 이선로 등이 지었으며 제자해(制字解), 초성해(初聲解), 중성해(中聲解), 종성해(終聲解), 합자해(合字解)의 5해(解)와 용자례(用字例)의 1례(例)로 되어 있다.)

한글자형의 독창성을 말하려면 우선 전제하여야 할 도구사회의 전통적 환경에 대하여 논한 후에 문자디자인의 조형성을 말하여야 한다.

첫째 : 그 당시 글씨를 쓰는 도구는 [붓]이며, 이 붓으로부터 나오는 [획(劃)]은 그림, 글씨를 비롯하여 다양하게 사용된 필기구(筆記具)이다. 훈민정음 해례를 보면 한문이나 일본어는 [붓]으로 쓴 획의 특징이 문자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 그런데 한글은 기하학적 형태와 [붓]에서 표현될 수 없는 [획 “Bold Gothic”]으로 되어 있다. 부드러운 붓을 필기도구로 사용해 온 동북아시아의 도구적 특징으로 볼 때 비교할 수 있는 사례가 없다. [고유한 문자의 모양]은 한, 중, 일 3국뿐만 아니라 15세기에 오늘 영문 알파벳 헬베티카(Helvetica) 볼드와 같은 획을 하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 발상이다. 여기서 우리는 중국의 한문과는 [전혀 다른 조형성]을 창안하여 [구별 지으려는 의도]가 분명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한글 문자의 [조형적 주체성]이라고 말하고 비교할 수 없이 고유한 기호체계를 창안함으로써 한글의 디자인정신 정체성의 표상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훈민정음 해례에서 발췌한 결과 그 자형(字形)을 보면 한글의 문자 모양에서 정체성을 나타내려는 의도를 분명히 살펴 볼 수 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조형의식에 나타난 조형적 특성을 말할 때 [비 기하학적]이라고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것을 말끔하게 씻어주는 조형의식의 실체가 한글의 자음체계와 모음체계이다. 한국디자인DNA발굴에 있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훈민정음 창제만큼 분명한 DNA를 발견할 수 있는 역사적 실체가 없다. 15세기 한글은 한국인 조형성의 독창성의 발견, 조형성의 새로운 길을 열어간 역사는 지구상에 없다. 자연의 기하학적 원리 유클리드 기하학(Euclidean Geometry) 형태의 본질에서 빌려 온 것인 양 그 질서를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것이 혜안(慧眼)이라는 것이다.

둘째 : 여기 훈민정음 자음에 나타난 한글 조형의 원리와 기호체계의 본질을 살펴보면 가까운 나라들의 문자 형태가 지닌 획의 체계와 전혀 다른 기호의 형태로서 유사성이 없는 독특한 조형성을 고딕체의 선을 보여주고 있으며, 기호의 시각적 완성도에서도 형과 획의 체계 역시 기하학적 형태의 구조의 틀로 맞출 수 있는 정리된 기호로 디자인되어 있다. 아래 도형은 한글 자형의 기하학적 분석의 원형을 보여 주고 있다.



기하학적 형태의 원형 구조란 자음에서는 [원형/사각형/삼각형]으로 기하적 형태의 원형구조를 창안하였으며, 모음에서는 [점/선(수직선과 수평선)]으로 되어 있다. 획의 체계는 수직과 수평의 지각을 지닌 격자(格子)의 구조로 정리되어 있으며, 삼각형의 이등변에서 나오는 대각선으로 ㅅ ㅆ ㅈ ㅊ ㅋ으로 명료하게 정리되어 격자(格子:Grid)의 구조와 패턴에서 나타나는 대각선으로 정리되어 시각기호의 단순화를 이루어낸 것이다. 이는 오늘날의 디자인 시각에서도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단순성의 구조와 질서를 찾아내는 음운구조(音韻構造)의 디자인 능력은 매우 어려운 일임에도 기호체계의 기하학적 조형성을 발휘한 창조력은 한글 창제의 진정한 가치가 아닐 수 없다.

셋째 : 1465년의 원각경언해(圓覺經諺解)를 살펴보면 창제 당시의 문

자가 진화되어 가는 것을 통해 강력한 [차이값]이 분명한 조형성의 문제(당시 한문과의 대비가 워낙 커 20여년 후에 이르러서는 그 조형성은 세련된 모습을 보인다. 영인본을 보면 한글의 문자가 보다 더 그래픽 획으로 문자의 꼴이 가늘어지고 날카로워지면서 점(點)이 획(劃)으로 변형되어, 변형된 만큼 한자도 [붓]의 부드러운 획 처리가 아니라 한글과 동질성을 지닌 꼴의 감각으로 적응되어 획들을 처리한 것을 보면, 한글이 한문 꼴의 쪽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한글 쪽으로 한문의 꼴을 변화시키고 있다. 한자와 한글의 동일한 조형성을 나타낸 것은 한글의 조형적 정체성에 한문을 적응시킨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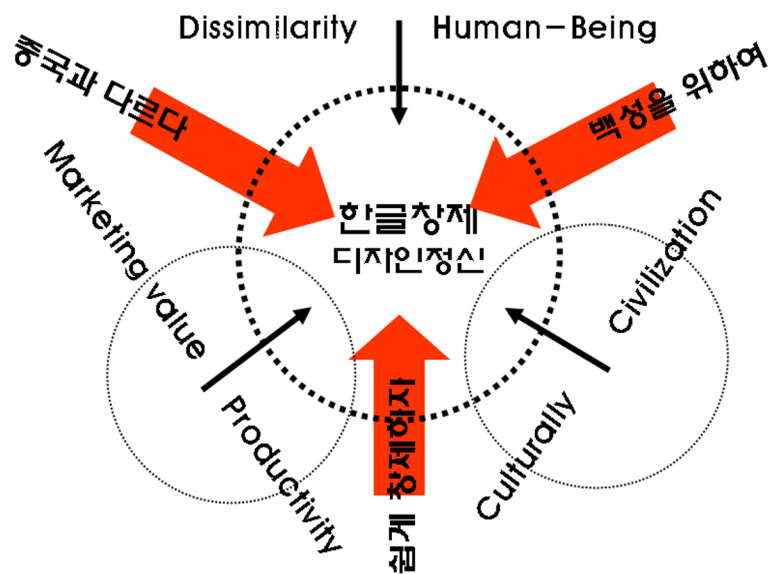
여기 원각정언해(圓覺經疏)에 나타난 한글의 조형적 진화는 한글창제 초기의 한글 자형의 정체성을 지켜가면서 조형성의 완성도를 위해 디자인 개선과정을 진행하고 있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원각정언해의 글씨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때까지만 해도 '붓'에 의해 나타나는 획의 특성이 배제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당시의 목판기법에 따르면 나무 위에 화선지에 글씨를 써서 붙여 칼로 조각하는 기법으로 미루어 원각정언해의 한글 꼴의 자형을 붓으로 그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른 경우는 붓글씨를 쓰면 되었지만 이 경우는 쓰는 것이 아니라 '그려야 하는 꼴'이다. 이러한 조건을 극복하면서 까지 조형성을 강조하려는 것을 보면 [한글 꼴의 조형적 정체성]이 한글 디자인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졌었다고 미루어 생각할 수

있다.

이 글씨의 조형성을 지닌 꼴이 지구상 어디에 역사적으로나 존재하는가? 진정한 민족 창의성의 기질과 성향을 발휘해 온 우리의 역사를 새로운 각도에서 인식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훈민정음을 통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우리자신을 비하하고 무엇인가 종속된 자의 생각으로 우리의 행위를 말하려는 태도를 반성해야 한다. 연구자는 1968년 한글 연구의 첫 논문을 쓸 때 원각경언해의 문자 꼴을 접하고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고, 그 놀라움은 지금도 여전하다. 이러한 과정을 볼 때 이를 모방설이라고 말하는 주장은 조형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라 하겠다.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이다. 문자의 모양이 비슷한 것은 같은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이다. 창제에서 비슷한 기호의 모양이 있다고, 참고 했다고, 모방이라고 한다면 형태(Form or Gestalt: 구조로서의 형태) 심리학적으로는 구조가 다르면 다른 것이며, 구조가 같으면 형태가 달라도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한글은 단순한 형체(Shape)기호가 아니라 기호의 체계와 구조를 새롭게 창제한 세계 디자인 사에서 현대적 의미의 사건적 기원으로 인식하여야 한다는 것을 세계의 디자인 사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 6부 결 론

결론으로 아래의 다이어그램은 훈민정음에 담겨진 창조적 디자인의 DNA를 정리한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Creative power in our inner being)의 재인식을 통해 21세기 한국인의 미래를 창조해 갈 세대들에게 놀라운 나라(Amazing Nation, Amazing Korea)로 만들어가기 위함이며, 부흥하는 국가의 목표를 성취해 갈 능력을 인식시키기 위함이다. 훈민정음은 매우 중요한 [경우]이다.



이 연구에서 우리는 많은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었다. 한국디자인 DNA 발굴에 대한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 앞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지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며 행동하는 모든 곳에서 나타나는 DNA를 훈민정음에서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DNA-1 [다름 : Dissimilarity]을 추구하는 창조적 기질과 성향의 DNA이다.

[다름]은 다른 사람의 생각대로 생각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판단에 따르지 않으며, 우리 자신의 생각과 판단, 그리고 행동에 충실하여 독특한 길을 찾고 실천하는 DNA이다. 즉, 같음 가운데 다름이 있고, 다름 가운데 같음이 있는 이치에 의해 다름의 이치를 존중하는 창의성 DNA

한국디자인의 DNA-[유일정신의 디자인]이다.

한국디자인의 DNA-['경우' 의 디자인]이다.

역사적으로-

청자의 신화를 따르지 않아 분청의 다른 시대를 열었고 분청의 신화를 따르지 않아 백자의 또 다른 신화들이 창조되어 왔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새롭다고 인식하는 진정한 창조성은 '다른 것(difference)' '이 아니라 비슷하지 않은 것(dissimilarity)'이다. 다른 것은 다른 것일 뿐 새로운 것이 아니다. (New is not difference, but dissimilar is the real new.) 라는 것을 후손들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이 발전해온 과정은 다른 국가와 사회가 걸어 온 길과는 전혀 다른 (dissimilarity) 창조적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경제발전 과정에서-

정주영 씨의 조선사업 신화, 이병철 씨의 반도체 신화, 박태준 씨의 포항제철의 신화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으로 옮겨 성공시킨 신화의 이야기 속에는 벽돌 쌓아가기 같은 발전(Graduate Building)의 계단적 모형을 통한 사고방식이 아니라, 훈민정음과 같이 [해야지, 해보자, 해야만 한다]는 것, 그래야만 하는 까닭인 소이연(所以然)과 마땅히 그래야만 하는(所當然) 믿음으로 행동하는 개척정신(Discovering)이 정신적 DNA이다.

“믿음이 있고, 열정이 있으면, 시작할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Seeing is not believing, but believing is seeing." 우리가 이것을 해야만 나라의 미래가 있다면(所以然), 아무리 여건이 좋지 않고, 문제가 많고, 자본력이 없어도, 마땅히 해야만 한다면(所當然), 해야 한다고 믿음으로 출발한 사람들이 선각자가 되고, 그로 하여금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오늘의 한국을 이루게 된 창조적 행동방식에 있는 것이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신세대들에게도-

인간은 아무도 똑같이 창조되지 않았다는 것에 따라 가르치는 것이나, 살아가도록 하는 것은 이치(理致)를 존중하는 것이며, 똑같이 태어나지 않은 인간을 똑같은 사람과 같이 가르치고, 살아가도록 하는 것은 이치(理致)에 어긋나는 것이다. 다른 시대에 태어나 살아 온 사람이 새로운 시대를 살아 갈 사람을

그들의 시대의식으로 가르치거나 살아가도록 하는 것은 이치(理致)에 어긋나는 일이다. 그래서 한국인의 창조성은 이치를 존중하고, 따르는 생각으로부터 나온다.

다르게 태어나고, 다르게 살아오면서, 다르게 생각해 온 젊은이들에 의해 다른 음악, 다른 예술인, 다른 영화, 다른 디자인으로 빛을 발하고 있다. 그 모든 접근 방식은 할리우드 스타일도, 홍콩 스타일도, 일본 스타일도 아니고, 그들의 영화들이 내포하고 있는 시나리오의 콘텐츠 구조와는 '전혀 다름'(dissimilarity)의 한국 영화를 만들어 온 것이며, 그들에게 혼민정음 DNA는 인류학적 기질과 성향의 여전 새로운 세대들에게도 유전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스포츠, 문화, 예술, 전 분야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우리는 지구상에서 따라하지 않고 독립적이며, 전수자나 전승자로서가 아니라 그와는 다른 길을 찾아 스스로의 인생을 창조해 가는 자수성가(自手成家)형 기질과 성향의 DNA를 유산으로 물려받고 있다. 계보를 이어가기보다는 계보를 떠나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독립 정신으로 자신의 지평을 열어간다. 그 지평을 창조해가려는 DNA가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계기를 열어 준 90년대 자유화 물결 이후 사회발전과 함께 전 국가, 전 분야에서 새로운 세대들에 의해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

국가와 사회의 문제가 닥쳐와도

국가적으로 어려운 정치 경제문제, 사회적 갈등으로 긴장과 대립의 위기들을 해결하는 집단의 생각, 판단, 행동이 다른 어느 나라들과 다른 현상으로 해결해 온 집단지성의 균형(collective Intelligent and Balance)이 사회발전과 경제발전의 균형을 성공적으로 이루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어느 나라와는 전혀 다르게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는 나라이다. 부분에 억매이지 않고, 세상을 크게 보려는 의식은 할머니에게도 살아 있었으며, 어린아이에게도 살아 있어 위기의 한국 IMF때에도 금을 내 놓는 세계 초유의 집단지성(collective Intelligent and Balance)의 발동으로 잃어버린 국가의 균형을 잡아주는 힘이 오늘에서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지속될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한글'을 창제한 것 같이 '우리나라'의 균형을 바로 잡는 '우리'란 일인칭, 이인칭, 삼인칭 단수와 복수가 없는 독특한 집단호칭의 무인칭대명사(無人稱代名詞)가 우리의 언어에서 중심을 이루고 있는 이상 창조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갈 것이다. 무인칭대명사의 힘이 해결해 가는 힘은 보이지 않지만 그 힘이 나타날 때 어떠한 문제도 해결해 갈 것이다. 이것이 전혀 다른 집단의 창조적 문제해결 능력이다.

DNA-2 [백성을 위함 : For The People]에 본질을 둔 창조적 DNA

[백성을 위하여]라는 정신은 인류의 역사에서 변할 수 없는 명제이다. 특히 오늘의 지구적 소통의 시대에서, 다양한 실존의 인류들이 서로의 좋은 정보들의 효과를 나눔으로 더 새로운 생활문화를 창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문화 소통의 지평을 넓혀야 할 것이다. 훈민정음의 이 정신은 언어로 인하여 막혀있는 세계를 열어 갈 인류를 위한 ‘디자인 기여’가 한국디자인의 생명력이며, 가치의 DNA가 되어야 한다.

[인류문명의 문제를 정신문화로 풀어가는 우리의 성향을 디자인 DNA로 삼아 새로운 디자인 패러다임이 세계를 향해 제창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디자인의 DNA - [명분(名分)]이다.

역사적으로-

1401년(조선 태종 1) 백성들의 억울한 일을 직접 해결하여 줄 목적으로 대궐 밖 문루(門樓) 위에 달았던 북 신문고가 있었고, 훈민정음은 물론 백성을 위한 창제이었고,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牧民心書)는 백성을 다스리는 목민관에 대한 지침이었고, 조소앙(趙素昂)이 주장한 삼균주의(三均主義)는 독립운동의 기본방략 및 조국건설의 지침으로 삼기 위하여 체계화한 민족주의적 정치사상이다. 백성의 마음이 하늘의 마음이라는 것만으로도 알 수 있다. 천명도설(天命圖說)에 의하면 이(理)에 네 개의 이치(理致)가 있는데 네 덕(德)은 시작하는 이치 으뜸 됨(元)이며, 비롯함(始)이다, 형통함(亨)으로 막힘을 뚫어 통하는 이치인 통함(通)이며, 적합함(利)은 어떤 목적에 도달하는 이치인 다다름(遂)이며, 성숙함(貞)은 이루어지는 이치로 이루어짐(成)을 가리킨다. 훈민정음의 창제는 ‘始-通-遂-成’의 창조적 이치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백성은 이치에 으뜸 됨이며, 이 으뜸 됨(元)의 목적은 백성들 사이에 막힌 거울 뚫어주는 형통함(亨)이며, 한글을 백성들에게 가장 적합함(利)의 이치에 맞도록 창제하고, 완성이라기보다는 목적에 도달하는 이치로 끝아야하며, 정하며, 백성들 사이에서 성숙한 것(貞)으로 인정이 되어야 훈민정음의 창제 이치에 맞는 창조성인 것이다.

경제발전에서-

한국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창의성이 어떻게 작용했을까? 으뜸은 제일과 다른 의미이다. 우리의 기업인들은 세계적으로 으뜸이 되려는 의식이 경영의 목표였

다. 아주 작은 문건을 만드는 기업이라도 그 물건에 관련한 ‘으뜸 됨(元)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세계에서 으뜸이 되는 국가로 향하는 오늘의 한국을 만들어 온 힘이다. 조선, 반도체, 철강, 자동차 원자력 등 많은 중화학 공업이 시작된 환경은 ‘백성의 먹 거리’, ‘나라의 먹 거리’를 시작하여야 하는 비롯함(始)의 창조적 의식이다. 이런 생각은 당시로서 무모한 생각이 아니라 ‘이치(理致)’에 합당한 동기였다. 이런 창조적 결단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막힌 미래를 뚫는 창의성의 이치 ‘형통함(亨)-통함(通)’으로 뚫어 놓아 세계와 통하는 한국이 되었다, 이러한 이치로 다다르기 위하여, 우리의 기질과 성향에 따른 경영과 교육으로 적합한 집단지성(Collective Intelligence)의 힘을 길러 목적에 도달 해 온 ‘적합함(利)-다다름(遂)’의 이치를 실천해 온 것에 있다. 보다더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는 ‘성숙함(貞)-이루어짐(成)’은 21세기 새로운 한국의 전설로, 신화로 창조적 이치(理致)로 이루어져(成) 으뜸 국가로 실현하게 될 것이다. 훈민정음의 창제는 ‘始-通-遂-成’의 창조적 이치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 사회가 창조적으로 발전 해온 깊은 근저(根底)에는 ‘비롯함(始)에 대한 시비(是非)-형통함(通)에 대한 시비(是非)-다다름(遂)에 대한 시비(是非)-이루어짐(成)에 대한 시비(是非)’가 사회의 집단으로부터 지속되어 오고, 시비(是非)가 벌어지고 있는 과정을 통해 균형(均衡)을 이루어왔으며, 시비(是非)는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으려는 집단의 지성활동인 것이다. 시비(是非)에 의해 조율되는 창의성, 시비(是非)를 넘어가 막힌 것을 뚫는 창의성, 형통케 하는 창의성, 이루어내는 창의성들이 우리가 발전하는 시비(是非)를 가리는 DNA라 할 수 있으며, 시비(是非)는 창의성의 명분을 얻는 지혜로운 과정이다. 시비(是非)는 정(正)반(反)합(合)과는 다르다. 시비(是非) 옳고 그름을 분별해 내려는 과정이다.

신세대들에게도

훈민정음 당시의 집현전 학사들이 나이가 20대 초였고, 당시의 한자에 조금도 불편이 없는 급제한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생각한 것은 백성들을 위한 왕의 명분과 민족 정체성의 빛을 발하기 위하여 따라 자신들의 능력을 “뭇땅 걸기(all in)”로 집중하였다. 그 결과 가장 으뜸으로, 통하며, 다다른 성공의 실체 훈민정음을 창조하였다. 요즘 신세대들은 자신의 인생을 뭇땅 걸기로 성공시키는 젊은 세대들이 모든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

각종 예술분야, 스포츠 분야, 과학기술 분야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 그 빛은 백성들에게 자부심과 긍지를 안겨주고 있다. 음악 분야에서 으뜸, 영화분야에

서 으뜸, 과학 분야에서 으뜸, 기업 분야에서 으뜸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인내와 도전의 기질과 성향의 DNA가 활성화되는 사회로, 열린사회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으뜸을 향한 창조력을 더욱 빛을 발할 것이다.

국가 사회적 문제에서도

120번째쯤 작은 나라, 5천만이 채 안 되는 나라, 산업화의 역사가 20세기 중반 d;후 1961년부터 국민소득 81불에 불과한 최빈국에서 출발한 나라, 일제 치하와 6.25의 전쟁으로 비극이 앞을 가리고 있었으며, 모든 것이 황폐화된 나라, 한국이 비로소 시작하기 위해 일어난지 50년 만에 세계 9대 경제 활동을 자랑하는 선진국이 되어가고 있다.

이 힘이 어디에 있으며, 그 창조성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훈민정음에는 이 비밀의 DNA가 모두 담겨있다. 우리는 빛의 민족이다. 백성은 '나라의 빛'이므로 그들이 빛을 발하게 하여야 한다.

훈민정음은 15세기 이후 세계 어느 정치사에서나, 사회발전사에서도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진정 국민을 위한 글자 창제가 있었는가? 디자인 사건이 있었는가? 이 정신과 사상이 세계로 향하여는 인류를 위한 진정한 디자인을 창조적으로 수행하는 DNA로 하여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훈민정음 창제와 같은 미래적 사건이 창조적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인류를 위해 '진정한 창조성이 무엇인지를 궁극적 관심으로 하여야 한다. 백성을 생각하는 임금의 큰마음으로, 천심(天心)으로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DNA-3 [쉽게, 더 쉽게, 아주 쉽게 : Easy, Easy, Easy]에 본질을 둔 창조적 DNA

쉽게 사용하고(be easy to use), 쉽게 배우고(be easy to learn), 쉽게 읽고 (be easy to read) 뜻이 서로 잘 통하도록(be easy to communicate)하며, 보다 많은 사람들이 막힌 무엇을 뚫어 열어주려는 무엇을 찾고, 실천하려는 넓은 마음(弘), 유익함(益) 사람(人)사이에서(間) 창조적인 일을 창안하려는 DNA

한국디자인의 DNA- [열린 소통(疏通)]이다.

역사적으로

역사는 소수의 사람들을 위한 막힌 사회였고, ‘통합’이 없어 소통이 단절된 사회였다. 이에 대한 사회혁명이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절대적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에 의해 막힌 통로, 열린 국제사회를 제창하지만 열리 못하는 세계의 현실, 한 사회 안에서조차도 계층 간에 열리지 못하고 통하지 못해 형통하지 못하는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고통을 해결하는 어떠한 일에서도 이러한 것을 뚫고, 통하며, 도달하여야 하는 목표가 있고, 이루어야 하는 것들이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막힌 것을 뚫는 창의성이 시작되어야 하는 까닭, 마땅히 이루어야 하는 것들을 이루어 온 역사를 보면 이치를 존중하고 이치에 따르는 우리의 기질과 심성(心性)의 성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치에 따르는 시비(是非)는 어찌 보면 쉬운 길이고, 과학적, 논리적 사고는 ‘정(正)-반(反)-합(合)’에 의한 합의에 기우러져 있어 정(正)-반(反)의 투쟁은 항상 존재하여 어려운 길이다. 어떤 문제도 쉽게 풀어나가는 창의성, 쉽게 이해시키는 창의성, 쉽게 도달하는 창의성이 빠른 성장을 가져 온 이치에 따른 창의성이며, 이 창의성이 반만년의 역사를 거쳐 오늘에 다다른 것(遂)에 이른 것이다. 이치에 역행하는 것에는 집단의 저항이 있었고, 이치에 따른 것에는 순종함이 있어 왔다. 순리(順理)를 존중하고, 따르며, 이에 어긋나지 않는 삶을 살아가려는 정신과 사상이 훈민정음을 낳았고, 중국과 달라야 한다는 것도 순리(順理)에 따르는 것이었고, 백성을 위해 만들어야 한다는 것도 홍익인간의 순리(順理)에 따른 것이었고, 쉬워야 한다는 것 역시 순리(順理)에 따른 마땅한 것이었다.

한국디자인이 서양의 과학기술 문명이 순리에 역행하는 것이었다면, 우리는 역행(逆行)을 순리(順理)로 바로 잡을 수 있는 디자인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경제 발전에서

IT산업의 발전과 확산의 본질적 기반이 쉽게 창조되고, 쉽게 사용할 문자의 구조에 힘입고 있다. 이러한 한글이 앞으로 얼마나 생산성을 높일지는 알 수 없다. 따라서 세계화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모든 인류의 다양한 언어와 문화와 생활의 차이를 묶어 내는 ‘가장 쉬운’ 공통분모를 지닌 디자인을 하여 지구상의 서로 다른 문화와 역사 가운데 같이 쉽게 사용하고, 쉽고 편리하게 묶어줄 디자인을 찾는 것이 내일의 이슈가 될 것이다. 보편적 가치는 모든 사람이나 인류 간에 막힌 것들을 찾아 소통케 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눈을 돌려 창안하는 능력을 훈민정음에서 배울 수 있다.

오늘의 신세대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인간이 가장 중요한 일은 ‘본연지성(本然之性)’에 충실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이치(理致)다. 그런데 자신의 스스로 그러한 본성(本性)에서 나오는 본심(本心)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사람으로 교육되어지는 현 제도 하에서, 튕겨져 나와 사람의 마음(人心)의 이(理)를 따라 형기(形氣)를 이끌어 간 사람들은 뛰어난 능력을 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사례들은 너무나 많다. 현대 서구식 교육의 문제는 사람의 욕심, 욕정인 인욕(人慾), 사람이 하고자 하는 인욕(人欲)으로 채워 넣는 교육이 되고 있어서 신세대들이 마음의 이치를 따라 스스로의 기질과 성향을 존중하며 기질을 펴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래야 자기 자신이 자기의 삶에 대한 사명에 ‘뭇땅 걸기’로 창의성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부 언(附言)

그 밖의 문자 모방설에 대한 것

훈민정음 해례원본에 나와 있는 한글의 문자 모양을 조형적 식가에서 살펴보면 우리는 몇 가지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밝혀둘 것은 한글의 문자 모양에 대한 가림토의 모방설을 당시의 한글 문자의 창제가 세종 때 창안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의 고전을 모방한 것이라고 한 아래의 내용들을 들어 주장하고 있다. 본 글에서는 한국디자인DNA를 발굴하기 위한 연구이므로 이 문제는 여기에서 논할 일이 아니므로 그 근거의 일부만 소개하고 넘어가려고 한다.

그런데 훈민정음의 문자 모양을 세종이 한 것이 아니라 모방이다. 라고 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는 흔히 한글을 세종대왕이 창제했다고 알고 있다. 그런데 『세종실록』에는 한글 이전에 다른 글자가 있었음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세종 25년 개해 12년, 훈민정음창제 첫 발표문을 보면, “이달 상감께서 친히 스물여덟 자를 만드시니 그 자는 고전(古篆)을 모방한 것이다.” 라는 구절이 나온다. 또한 세종 28년, 9월 정인지가 쓴 해례 서에는 “...가로되 훈민정음이라 하시니, 상형하되 글자는 옛날의 전자(篆字)를 본떠서...” 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내용은 당시 집현전을 대표하던 학자로서 한글창제를 반대했던 최만리 등이 올린 상소문에도 나온다. “언문은 모두 옛 글자를 근본 삼은 것으로 새로운

자가 아니라고 하신다면 곧 자형은 비록 옛날의 전문(篆文)을 모방하였더라도...” 저자는 한글창제 당시의 이러한 기록에서 한글 이전에 문자가 있었고 세종대왕은 한글을 재창조한 것임에 착안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래서 한글 이전의 문자를 『환단고기』와 『단기고사』를 통해 찾게 된다. 『환단고기』 「단군세기」를 보면 단군3세 가륜 임금 때인 BC. 2181년에 “삼랑(三郎) 을보륜(乙普勒)에게 명하여 정음 38자를 만들게 하니 이것이 ‘가림토(加臨土)’이다”는 기록이 나온다. 그리고 『단기고사』에는 단군조선 개국 초기에 만들어진 가림토 문자가 그 후 어떻게 발전하면서 문명의 역사를 열어갔는지 보여주고 있다는 등이다.

이러한 그들의 주장에는 문제가 있다. 그것은 한글 창제를 단순히 언어를 표기하는 문자의 모양에 초점을 맞추어 말하는 것이다. 우리말의 소리를 낼 수 있는 시각기호의 창제는 시각기호의 모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소리와 기호의 상관관계를 체계화 하는 것과 기호의 시각체계에서 기호의 조형성의 완성도에 창제의 독창성이 있는 것이다. 획의 모양이 가림토의 문자와 비슷한 것이 있다고 해서 모방이라고 한다면 영문과 한글 사이에 유사한 문자의 모양이 있는 것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영문 알파벳 기호에서, 영문알파벳 [E]와 한글의 자음 중 [ㄷ]과 [ㅌ] 모양이 같고, 영문 모음 [I]와 한글 모음 [ㅣ]가 모양이 같고 [O]가 모두 같고, 좀더 살펴보면 여기 영문 알파벳에서 A-E-H-I-L-O 등이 한글의 ㅅ ㅌ ㅈ ㅊ ㅌ ㅍ 이 영문과 비슷하지만 소리체계가 다르면 다른 것이다. 한자의 어떤 획이 같다고 발음이 같은 것이 아니라 기호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것은 약속에 의해 기하학적 선, 형으로 세계의 모든 문자에서는 유사하거나 똑같은 형태의 모양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글의 모양에서도 같은 기하학적 형태가 나타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발음을 낼 수 있는 획으로서의 기하학적 기호의 모양을 사각기호로 표현 하는 과정에서 가림토의 모양을 참고한 것을 ‘모방’이라느니, 단군이 한글을 창제 하였다고 하는 것은 이해



▲ 가림토 문자와 한국, 일본, 인도, 몽고, 중국 고대문자 비교표

가 되질 않는다. 한글창제의 가치는 기호체계의 창조와 모아쓰기 방식의 소프트웨어 창안에 있는 것이다.

집현전 부제학(集賢殿副提學) 최만리(崔萬理) 등이 상소하기를,

“신 등이 었디어 보옵건대, 언문(諺文)을 제작하신 것이 지극히 신묘화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혜를 운전하심이 천고에 뛰어 나시오나, 신 등의 구구한 좁은 소견으로는 오히려 의심되는 것이 있사와 감히 간곡한 정성을 펴서 삼가 뒤에 열거하오니 었디어 성재(聖裁)하시옵기를 바랍니다.

1. 우리 조선은 조종 때부터 내려오면서 지성스럽게 대국(大國)을 섬기어 한결 같이 중화(中華)의 제도를 준행(遵行)하였는데, 이제 글을 같이하고 법도를 같이하는 때를 당하여 언문을 창작하신 것은 보고 듣기에 놀라움이 있습니다. 설혹 말하기를, ‘언문은 모두 옛 글자를 본뜬 것이고 새로 된 글자가 아니라.’ 하지만, 글자의 형상은 비록 옛날의 전문(篆文)을 모방하였을지라도 음을 쓰고 글자를 합하는 것은 모두 옛 것에 반대되니 실로 의거할 데가 없사옵나이다. 만일 중국에라도 흘러 들어가서 혹시라도 비난하여 말하는 자가 있사오면, 어찌 대국을 섬기고 중화를 사모하는 데에 부끄러움이 없사오리까.

1. 옛부터 구주(九州)의 안에 풍토는 비록 다르오나 지방의 말에 따라 따로 문자를 만든 것이 없사옵고, 오직 몽고(蒙古)·서하(西夏)·여진(女眞)·일본(日本)과 서번(西蕃)의 종류가 각기 그 글자가 있되, 이는 모두 이적(夷狄)의 일이므로 족히 말할 것이 없사옵나이다. 옛글에 말하기를, ‘화하(華夏)를 써서 이적(夷狄)을 변화시킨다.’ 하였고, 화하가 이적으로 변한다는 것은 듣지 못하였습나이다. 역대로 중국에서 모두 우리나라는 기자(箕子)의 남긴 풍속이 있다고, 문물과 예악을 중화에 견주어 말하기도 하는데, 이제 따로 언문을 만드는 것은 중국을 버리고 스스로 이적과 같아지려는 것으로서, 이른바 소합향(蘇合香)을 버리고 당랑환(螳螂丸)을 취함이오니, 어찌 문명의 큰 흠절이 아니오리까.

1. 신라 설총(薛聰)의 이두(吏讀)는 비록 야비한 이언(俚言)이오나, 모두 중국에서 통행하는 글자를 빌어서 어조(語助)에 사용하였기에, 문자가 원래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므로, 비록 서리(胥吏)나 복예(僕隸)의 무리에 이르기까지라도 반드시 익히려 하면, 먼저 몇 가지 글을 읽어서 대강 문자를 알게 된 연후라야 이두를 쓰게 되옵는데, 이두를 쓰는 자는 모름지기 문자에 의거하여야 능히

의사를 통하게 되는 때문에, 이두로 인하여 문자를 알게 되는 자가 자못 많사 오니, 또한 학문을 흥기시키는 데에 한 도움이 되었습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원래부터 문자를 알지 못하여 결승(結繩)하는 세대라면 우선 언문을 빌어서 한 때의 사용에 이바지하는 것은 오히려 가할 것입니다. 그래도 바른 의논을 고집하는 자는 반드시 말하기를, ‘언문을 시행하여 임시 방편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더디고 느릴지라도 중국에서 통용하는 문자를 습득하여 길고 오랜 계책을 삼는 것만 같지 못하다.’ 고 할 것입니다. 하물며 이두는 시행한 지 수 천 년이나 되어 부서(簿書)나 기회(期會)등의 일에 방해(防礙)됨이 없사온데, 어찌 예로부터 시행하던 폐단 없는 글을 고쳐서 따로 야비하고 상스러운 무익한 글자를 창조하시나이까. 만약에 언문을 시행하면 관리된 자가 오로지 언문만을 습득하고 학문하는 문자를 돌보지 않아서 이원(吏員)이 둘로 나뉘어질 것이옵니다. 진실로 관리 된 자가 언문을 배워 통달한다면, 후진(後進)이 모두 이러한 것을 보고 생각하기를, 27자의 언문으로도 족히 세상에 입신(立身)할 수 있다고 할 것이오니, 무엇 때문에 고심 노사(苦心勞思)하여 성리(性理)의 학문을 궁리하려 하겠습니까.

이렇게 되으면 수십 년후에는 문자를 아는 자가 반드시 적어져서, 비록 언문으로써 능히 이사(吏事)를 집행한다 할지라도, 성현의 문자를 알지 못하고 배우지 않아서 답을 대하는 것처럼 사리의 옳고 그름에 어두울 것이오니, 언문에만 능숙한들 장차 무엇에 쓸 것이옵니까. 우리 나라에서 오래 쌓아 내려온 우문(右文)의 교화가 점차로 땅을 쓸어버린 듯이 없어질까 두렵습니다. 전에는 이두가 비록 문자 밖의 것이 아닐지라도 유식한 사람은 오히려 야비하게 여겨 이문(吏文)으로써 바꾸려고 생각하였는데, 하물며 언문은 문자와 조금도 관련됨이 없고 오로지 시골의 상말을 쓴 것이겠습니까. 가령 언문이 전조(前朝) 때부터 있었다 하여도 오늘의 문명한 정치에 변로지도(變魯至道)하려는 뜻으로서 오히려 그대로 물려받을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고쳐 새롭게 하자고 의논하는 자가 있을 것으로서 이는 환하게 알 수 있는 이치이옵니다. 옛 것을 싫어하고 새 것을 좋아하는 것은 고금에 통한 우환이온데, 이번의 언문은 새롭고 기이한 한 가지 기예(技藝)에 지나지 못한 것으로서, 학문에 방해됨이 있고 정치에 유익함이 없으므로, 아무리 되풀이하여 생각하여도 그 옳은 것을 볼 수 없사옵니다.

1. 만일에 말하기를, ‘형살(瀕殺)에 대한 옥사(獄辭)같은 것을 이두 문자로 쓴다면, 문리(文理)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백성이 한 글자의 착오로 혹 원통함을 당할 수도 있겠으나, 이제 언문으로 그 말을 직접 써서 읽어 듣게 하면, 비록 지극히 어리석은 사람일지라도 모두 다 쉽게 알아들어서 억울함을 품을 자가 없을 것이라.’ 하오나, 예로부터 중국은 말과 글이 같아도 옥송(獄訟)

사이에 원왕(冤枉)한 것이 심히 많습니다. 가령 우리 나라로 말하더라도 옥에 갇혀 있는 죄수로서 이두를 해독하는 자가 친히 초사(招辭)를 읽고서 허위인 줄을 알면서도 매를 건디지 못하여 그릇 항복하는 자가 많사오니, 이는 초사의 글 뜻을 알지 못하여 원통함을 당하는 것이 아님이 명백합니다. 만일 그러하면 비록 언문을 쓴다 할지라도 무엇이 이보다 다르오리까. 이것은 형옥(刑獄)의 공평하고 공평하지 못함이 옥리(獄吏)의 어떠하나에 있고, 말과 문자의 같고 같지 않음에 있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으니, 언문으로써 옥사를 공평하게 한다는 것은 신 등은 그 옳은 줄을 알 수 없사옵니다.

1. 무릇 사공(事功)을 세움에는 가깝고 빠른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사온데, 국가가 근래에 조치하는 것이 모두 빨리 이루는 것을 힘쓰니, 두렵건대, 정치하는 체제가 아닌가 하옵니다. 만일에 언문은 할 수 없어서 만드는 것이라 한다면, 이것은 풍속을 변하여 바꾸는 큰 일이므로, 마땅히 재상으로부터 아래로는 백료(百僚)에 이르기까지 함께 의논하되, 나라 사람이 모두 옳다 하여도 오히려 선갑(先甲) 후경(後庚)하여 다시 세 번을 더 생각하고, 제왕(帝王)에 질정하여 어그러지지 않고 중국에 상고하여 부끄러움이 없으며, 백세(百世)라도 성인(聖人)을 기다려 의혹됨이 없는 연후라야 이에 시행할 수 있는 것이옵니다. 이제 넓게 여러 사람의 의논을 채택하지도 않고 갑자기 이배(吏輩) 10여 인으로 하여금 가르쳐 익히게 하며, 또 가볍게 옛사람이 이미 이룩한 운서(韻書)를 고치고 근거 없는 언문을 부회(附會)하여 공장(工匠) 수십 인을 모아 각본(刻本)하여서 급하게 널리 반포하려 하시니, 천하 후세의 공의(公議)에 어찌하겠습니까. 또한 이번 청주 초수리(椒水里)에 거동하시는 데도 특히 연사가 흥년인 것을 염려하시어 호종하는 모든 일을 힘써 간략하게 하셨으므로, 전일에 비교하면 10에 8, 9는 줄어들었고, 계달하는 공무(公務)에 이르러도 또한 의정부(議政府)에 맡기시어, 언문 같은 것은 국가의 급하고 부득이하게 기한에 미쳐야 할 일도 아니온데, 어찌 이것만은 행재(行在)에서 급급하게 하시어 성궁(聖躬)을 조섭하시는 때에 번거롭게 하시나이까. 신 등은 더욱 그 옳음을 알지 못하겠나이다.

1. 선유(先儒)가 이르기를, ‘여러가지 완호(玩好)는 대개 지기(志氣)를 빼앗는다.’ 하였고, ‘서찰(書札)에 이르러서는 선비의 하는 일에 가장 가까운 것이나, 외곬으로 그것만 좋아하면 또한 자연히 지기가 상실된다.’ 하였습니다. 이제 동궁(東宮)이 비록 덕성이 성취되셨다 할지라도 아직은 성학(聖學)에 잠심(潛心)하시어 더욱 그 이르지 못한 것을 궁구해야 할 것입니다. 언문이 비록 유익하다 이룰지라도 특히 문사(文士)의 육예(六藝)의 한 가지일 뿐이옵니다. 하물며 만에 하나도 정치하는 도리에 유익됨이 없사온데, 정신을 연마하고 사려를 허비하며 날을 마치고 때를 옮기시오니, 실로 시민(時敏)의 학업에 손실

되옵니다. 신 등이 모두 문묵(文墨)의 보잘것없는 재주로 시종(侍從)에 대죄(待罪)하고 있으므로, 마음에 품은 바가 있으면 감히 함묵(含默)할 수 없어서 삼가 폐부(肺腑)를 다하와 우러러 성충을 번독하나이다.” 하니,

임금이 소(疏)를 보고, 만리(萬理) 등에게 이르기를,

“너희들이 이르기를, ‘음(音)을 사용하고 글자를 합한 것이 모두 옛 글에 위반된다.’ 하였는데, 설총(薛聰)의 이두(吏讀)도 역시 음이 다르지 않으나. 또 이두를 제작한 본뜻이 백성을 편리하게 하려 함이 아니하겠느냐. 만일 그것이 백성을 편리하게 한 것이라면 이제의 언문은 백성을 편리하게 하려 한 것이다. 너희들이 설총은 옳다 하면서 군상(君上)의 하는 일은 그르다 하는 것은 무엇이나. 또 네가 운서(韻書)를 아느냐. 사성 칠음(四聲七音)에 자모(字母)가 몇이나 있느냐. 만일 내가 그 운서를 바로잡지 아니하면 누가 이를 바로잡을 것이냐. 또 소(疏)에 이르기를, ‘새롭고 기이한 하나의 기예(技藝)라.’ 하였으니, 내 늘그막에 날[日]을 보내기 어려워서 서적으로 벼를 삼을 뿐인데, 어찌 옛 것을 싫어하고 새 것을 좋아하여 하는 것이겠느냐. 또는 전렵(田獵)으로 매사냥을 하는 예도 아닌데 너희들의 말은 너무 지나침이 있다. 그리고 내가 나이 들어서 국가의 서무(庶務)를 세자에게 오로지 맡겼으니, 비록 세미(細微)한 일일지라도 참여하여 결정함이 마땅하거든, 하물며 언문이겠느냐. 만약 세자로 하여금 항상 동궁(東宮)에만 있게 한다면 환관(宦官)에게 일을 맡길 것이냐. 너희들이 시종(侍從)하는 신하로서 내 뜻을 밝게 알면서도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하니,

만리(萬理) 등이 대답하기를,

“설총의 이두는 비록 음이 다르다 하나, 음에 따르고 해석에 따라 어조(語助)와 문자가 원래 서로 떨어지지 않사온데, 이제 언문은 여러 글자를 합하여 함께 써서 그 음과 해석을 변한 것이고 글자의 형상이 아닙니다. 또 새롭고 기이한 한 가지의 기예(技藝)라 하온 것은 특히 문세(文勢)에 인하여 이 말을 한 것이옴고 의미가 있어서 그러한 것은 아니옵니다. 동궁은 공사(公事)라면 비록 세미한 일일지라도 참결(參決)하지 않을 수 없사오나, 급하지 않은 일을 무엇 때문에 시간을 허비하며 심려하시옵니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전번에 김문(金汶)이 아뢰기를, ‘언문을 제작함에 불가할 것은 없습니다.’ 하였는데, 지금은 도리어 불가하다 하고, 또 정창손(鄭昌孫)은 말하기를, ‘삼강행실(三綱行實)을 반포한 후에 충신·효자·열녀의 무리가 나음을 볼 수 없는 것은, 사람이 행하고 행하지 않는 것이 사람의 자질(資質) 여하(如何)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찌 꼭 언문으로 번역한 후에야 사람이 모두 본받을 것입니까.’ 하였으니, 이따위 말이 어찌 선비의 이치를 아는 말이겠느냐. 아무짝에도 쓸데 없는 용속(庸俗)한 선비이다.” 하였다.

먼저전에 임금이 정창손에게 하교하기를,

“내가 만일 언문으로 삼강행실(三綱行實)을 번역하여 민간에 반포하면 어리석은 남녀가 모두 쉽게 깨달아서 충신·효자·열녀가 반드시 무리로 나올 것이다.”

하였는데, 창손이 이 말로 계달한 때문에 이제 이러한 하교가 있는 것이었다. 임금이 또 하교하기를,

“내가 너희들을 부른 것은 처음부터 죄주려 한 것이 아니고, 다만 소(疏) 안에 한두 가지 말을 물으려 하였던 것인데, 너희들이 사리를 돌아보지 않고 말을 변하여 대답하니, 너희들의 죄는 벗기 어렵다.”

하고, 드디어 부제학(副提學) 최만리(崔萬理)·직제학(直提學) 신석조(辛碩祖)·직전(直殿) 김문(金汶), 응교(應敎) 정창손(鄭昌孫)·부교리(副校理) 하위지(河緯之)·부수찬(副修撰) 송처검(宋處儉), 저작랑(著作郎) 조근(趙瑾)을 의금부에 내렸다가 이튿날 석방하라 명하였는데, 오직 정창손만은 파직(罷職)시키고, 인하여 의금부에 전지하기를,

“김문이 앞뒤에 말을 변하여 계달한 사유를 국문(鞫問)하여 아뢰라.”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 【영인본】 4책 543면